

광양서 봄 매화 힐링축제

metro®
메트로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제2938호 ww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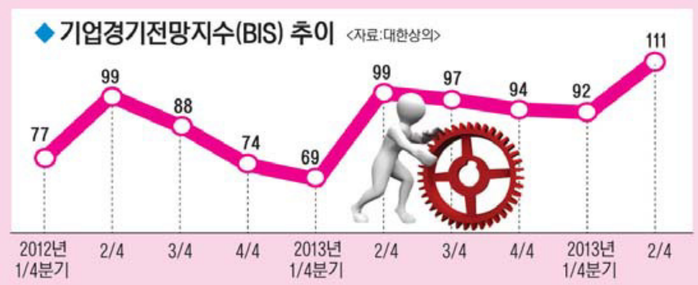
한류스타도 세대교체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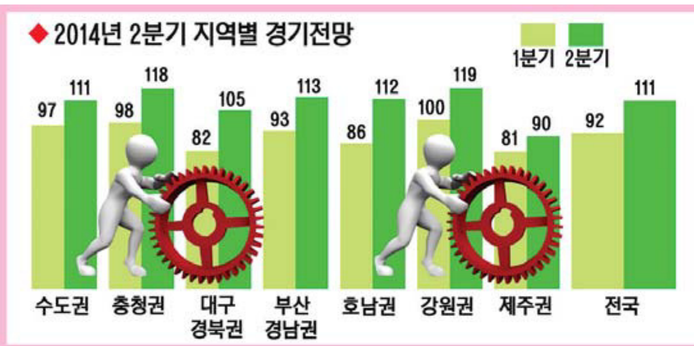
체감경기 봄맞아 훈풍부나

2분기 BSI 111 가동률 78%
내수 중심 완만한 회복세로

"국내 경기지표가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 여건에 따라 영향이 커 중국·유럽 등의 경기 회복과 국제금융 시장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경기 개선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송의영 서강대 교수

국내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로, 국내 경기에도 오랜만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쇼크가 대외 변수지만 긍정적인 신호다.





◆상의 제조업체 대상 조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24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전망치가 '111'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보다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3년만에 최고치다.

대한상의 측은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던 경기전망지수가 미국 경기 회복과 자동차·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황 개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대·중소기업과 수출·내수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대기업의 2분기 BSI는 1분기 97에서 113으로 크게 올랐고, 중소기업도 91에서 111로 뛰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도 각각 115, 110을 기록하며 2분기 경기 전망을 밝게 했다.

정부도 이런 기업의 기대감을 수치로 뒷받침했다. 정부는 최근 '실물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 1분기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며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 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거의 회복했다며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민간으로 회복세가 확산되고, 산업활동 개선 흐름도 올해 1월 생산 증가세가 전 분야로 확대되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78.2%)도 지난해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및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건설 투자도 아파트 분양 등이 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EU 회복세…중국발 쇼크 변수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경제 회복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있었던 금융인 모임에서 "경제 회복의 신호가 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또 미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2005년 3.35% 이후 최고 수준인 3.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최근 제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 내 기업들도 체감경기지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목을 잡을 개연성도 다분하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7.5%로 정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지난 2월 수출 실적은 1년 전보다 18% 넘게 하락했고, 소매·생산·투자 등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주요 경기지표도 예상을 밑돌았다. 특히 투자지표의 경우에도 지난 1~2월 고정 투자 자산은 17.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학 구조개혁에 쏠린 눈 교육부 주최로 19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고등교육 정책 및 사업 공동 설명회'에 참가한 각 대학교 관계자들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날 "대학 평가에 따라 대학별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과거에 자체적으로 감축한 정원을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월 28일 향후 9년간 대입 정원 16만 명을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평균인 19.6%를 밑도는 수치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크림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크림반도 리스크 고조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향후 3개월간 지속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 국제 유가가 10% 이상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이 0.2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광역급행버스 2개→44개 노선으로

오는 2020년까지 광역급행버스(BRT)가 2개 노선에서 44개 노선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년) 변경안에서는 광역급행버스(BRT) 노선을 현행 2개에서 44개로 확대키로 했다. 국도 1호선 수원 장안구청 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수도권 24개를 비롯해 부산·울산권 2개, 대구권 6개, 광주권 3개, 대전권 9개 등이다.

BRT의 km당 건설비는 지하철 1000억원, 경전철 460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억원 수준으로 대표적인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강일역~검단산역)과 대구지하철1호선(하원설하~대합산단)을 연장하는 사업도 반영했다.

국토부는 BRT 확대와 전철 연장, 광역간선도로망 확장 등으로 대도시와 인접 지역의 평균 통행 속도는 현재 시속 36.4㎞에서 2020년 41.7㎞로 15% 빨라지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37.4%에서 46.5%로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햄버거 먹으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햄버거 미팅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 혁파…끝장토론에 TV생중계

민간이 묻고 장관이 답변…기업인 50명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파'에 시동을 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

애초 이 회의는 17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란 말을 자주 했던 박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5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회장 또는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규제 때문에 고충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대거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전체 참석자 규모는 1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방식도 장관들의 보고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변경됐다. 민간인 참석자가 규제로 인한 애로점 등을 설명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회의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잡혀있지만 기업인들의 1인당 발언 기회가 2~3분만 돼도 100~120분이 소요되고 각 장관들의 답변과 대통령 발언까지 더해지면 종료 시간은 예측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19일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관계 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는 등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위한 막바지 준비를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현장 목소리 듣는 것과 규제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과제는 무엇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등 시간을 적절히 배열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주가 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 듣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뛰는 제조업에 기는 금융회사

기자 수첩

김 현 정 <경제산업부 기자>



한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란 광고 카피가 크게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워낙 입에 오르내린 탓에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을 묻는 시험 문제에 당시 초등학생들이 대거 오답을 적어냈다는 우스갯소리도 떠돌아다닐 정도였다.

최근 한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의 발언에 이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사로 참가한 외국인 임원은 한국 금융업의 발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제조업이 상당한 궤도에 오른 것과 달리 금융업은 그만큼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외국계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영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파생 상품 등 각종 신종 금융 상품의 영역은 아직 외국계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주식 등 금융 분야는 '누군가가 따면 누군가는 잃는' 수익구조가 강해 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치적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을 제약하면 더 큰 가치를 이루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전쟁을 위해 개발된 컴퓨터 기술은 점차 발전해 모두가 PC를 쓰는 정보화시대를 열었고 이제 전기자동차와 접목돼 환경오염을 줄이는 첨병 역할을 한다. 금융 기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간첩사건' 녹음파일 시청하는 야당의원들 국회 법사위가 19일 오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3월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보전 절차의 녹음파일을 의원들이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비전위 "비례대표 확대"

신당추진단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19일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했다.

새정치비전위 위원장인 백승헌 변호사와 간사인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합 신당에 이 같은 정치혁신안을 제시하고 통합 신당의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 구성도 함께 요청했다.

백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크게 높여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 체제를 타파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정기자 jhj@

새누리 권역별 연설회 '원샷투표'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과 관련, 권역별로 합동연설회를 나눠서 실시하되 투표는 현장에서 한 번에 선정하는 '원샷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광역시, 세종시는 TV토론, 정책토론회, 타운미팅 등 다양한 방식의 합동 선거운동을 실시한 뒤 한 차례의 후보자 선출대회를 열어 현장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서울은 10일 동안의 경선 기간 동안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4번의 TV토론과 3번의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

경기도 등 도 지역은 TV토론과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투표 편의를 고려해 시·군·구 단위에서 후보자 선출대회 전날 투표를 실시, 다음날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연설회를 여는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투·개표한다.

김재원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은 "도 지역의 경우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자기 지역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전당대회 방식을 택했고, 서울을 비롯한 특별시·광역시는 한 곳에서 투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20일 오전부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안철수·문재인 조만간 만날듯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조만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문 의원은 19일 "안 의원과는 오며 가며 보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있다"며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도 이날 "서로 일정 맞춰보기로 했고, 부산에서 창당대회가 있을 때 오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석가모니 보리수 묘목 기증식

●인도 정부가 선물한 '석가모니 보리수' 묘목 기증식이 19일 경기도 국립수목원에서 열렸다.

높이 30cm 남짓한 이 묘목은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가 현재의 인도 보드가야 사원 구역에서 득도할 당시 주변에 있던 보리수의 직계 후손이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당시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묘목 증정 의사를 표했고 지난 7일 묘목을 전달했다.

한·미·일 헤이그서 정상회담 가능성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26일로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도 4월 초로 연기한 점을 들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이 소식통은 "한·일 양자회담은 당장 힘들지만 미국의 한·일 간 화해 요청이나 일본의 성의 표시 등을 감안하면 한·미·일 3자회담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면 의제 조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헤이그 3자회담에 대한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일 3자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핵 및 동북아 정세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의 중재로 한국 측도 3자 정상회담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역사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강해 최종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막바지 설득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대출사기 사건 금감원 간부 연루

KT ENS 협력사에 조사내용 알려줘

KT ENS 대출사기 사건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 협력업체들이 은행권에서 받은 부정 대출 금액은 총 1조8335억원이며 이 중 2894억원은 상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감원 김모(50) 팀장이 핵심 용의자인 엔에스쏘울 전모(49)씨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해외로 달아나도록 도와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T ENS 협력업체들이 대출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금융권의 부실한 대출 관리 시스템 때문이었다. 대출사기에 이용된 KT ENS의 허위 매출채권을 발급하는 데 사용된 법인 인감도장은 아르바이트생이 보관할 정도로 허술했다.

대출사기에는 KT ENS 협력업체들이 KT ENS에 납품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내비게이션에 대한 허위 매출채권 양도 승낙서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이용됐다.

이 문서에는 KT ENS의 법인 인감도장이 이용됐는데 부정 대출을 도운 KT ENS 김모(51) 부장은 이 도장을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점심 시간 때 등을 이용해 몰래 꺼내 서류 위조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모 부장과 협력업체인 중앙티앤씨 서모(44) 대표 등 15명을 검거하고, 대표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이 대출사기에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SPC) 대표 전모(38)씨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해외로 달아난 전씨는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한 경찰 관계자가 KT ENS 대출사기 사건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양심은 어디에? 19일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동시 다발 118차 정기수요집회'에서 여학생이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선애 태광 전 상무 다시 수감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가 다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19일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3년8개월가량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형 생활로 인해 현저히 건강이 나빠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며 "재판부 역시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세 차례 연장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윤다혜기자

원주YWCA 금연캠페인 나서

원주YWCA는 18일 오전 11~12시 원주시 중앙시장 일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가 추진하는 흡연 폐해 홍보와 금연운동 확산을 지지하기 위해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회원을 둔 한국YWCA연합회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공단의 담배소송 지지를 밝혔다. 또 청소년과 여성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원주YWCA 회원 50여 명은 담배의 일반적인 해악과 함께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 폐해 등에 대해 알렸다.

슈퍼서 술 사기 불편해진다

5월부터 서울 시내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술을 사기가 불편해진다.

서울시는 19일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해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까지는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하는 SSM은 322곳, 편의점은 5278곳이다.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에 동참하는 가게는 앞으로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놓을 수 없다.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 끼워 팔기도 금지된다.

또 세로·가로 540×394㎜ 이내 포스터와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설치할 수 있고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 눈에 띄게 붙이고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준수 교육도 연 2회 시행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해당 조항이 의무화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체 실무자들과 함께 7개월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만든 만큼 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광진우체국과 성동구청은 18일 오전 성동구청 7층 전략회의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 사례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광진우체국 소속 185명의 집배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을 발굴해 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3만여건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정치 관련 글' 규모가 중간 수사 발표 때 공개된 수치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이들이 작성한 정치 관련 글이 3만여 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선과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도 6000건이 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정치 관련 글 1만5000여 건, 정치 글 2100여 건) 때와 비교하면 정치 관련 글은 2배로, 정치글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군 수사 당국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삭제 게시물 복원 작업 등을 통해 계속 관련 사안을 조사해왔다. 최종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이 추가로 대거 파악됨에 따라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등 형사입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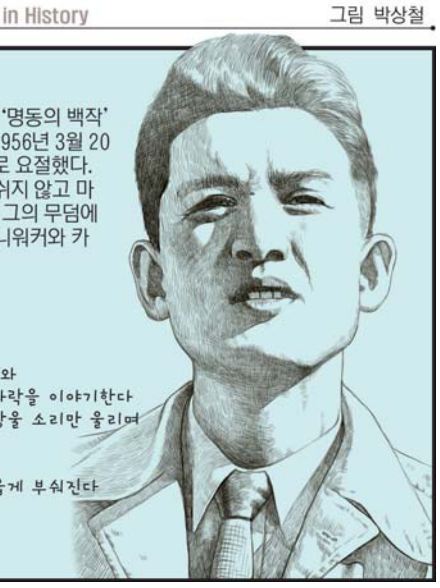
시인 박인환 사망

훤칠한 키와 수려한 용모로 '명동의 백작'이라 불리던 시인 박인환이 1956년 3월 20일 30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요절했다. 시인 이상을 기리며 사흘간 쉬지 않고 마신 술 때문이었다. 문우들은 그의 무덤에 시인이 평소 좋아하던 술 조니워커와 카멜 담배를 함께 묻었다.

목마와 숙녀

한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숴진다

……(후략)





'종편3사'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종합편성채널 3사(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의 재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재승인안은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여당 추천 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예식장 80%가 계약해지 거절

소비자원 피해 조사 결과 분석

국내 예식장 이용 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은 계약 해지 거절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간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 접수한 178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금 반환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거절이 14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 불만이 30건(16.9%)으로 '계약 해지 거절'관련 피해가 집중됐다.

계약 해지 거절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99건·55.6%)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49건· 27.5%)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내용 불만은 서비스 불만족 11건(6.2%), 식대 과다 청구 9건(3.9%), 계약 내용 이행 거부 및 변경 7건(3.9%)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사례 대부분(88건·94.6%)은 소비자가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기고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가 2개월 전에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계약금으로는 50만~100만원(34.4%)이 가장 많았다. 400만원 이상(5.8%)을 요구하는 경우도 9건(5.8%)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70건·39.3%)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인천은 58건(32.6%)으로 다른 주요 도시들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예식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인해 계약 해지·계약 이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92건(51.7%)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측은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을 자세히 적는 한편 예식 일자 변경과 취소는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요구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서울 하수도요금 평균 15% 인상

서울시 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되는 하수도요금이 이달 청구분부터 최대 21% 오른다.

서울시는 하수도요금을 이달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한다는 내용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평균 인상률은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과 욕탕용은 14%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이 올랐고,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월 31㎥를 쓰는 가정이라면 하수도요금이 월 8410원에서 9700원으로 1290원이 오르게 된다.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까지 ㎥당 300원, 30~50㎥에 700원, 50㎥를 넘는 양은 1070원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하수도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나비야 어서 나와" 19일 전남 함평군 엑스포공원 나비생태관에서 열린 제16회 함평나비대축제 성공 기원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나비를 날리고 있다. 함평나비축제는 5월 2~11일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전 부인 살해 도피범 검거

시드니공항서 강제추방

전 부인 살해 직후 해외로 도피한 40대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강제 추방당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박모(49)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처 A(34·미용사)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실어 인천공항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시간여 뒤 호주 시드니행 비행기에 오른 박씨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옷에 혈흔이 묻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긴 시드니공항 경찰의 추궁에 항의하다 입국 거부돼 강제 추방당했다.

인터폴 등을 통해 박씨가 비행기로 강제 추방되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인천공항에 대기해 있다 18일 오후 5시45분께 출국장을 나서는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전처에게 빌린 돈 1억8000만원 때문에 말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용기기자 kahn@

현재현 동양 회장 27일 첫공판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 임직원의 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열린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27일 첫 공판을 열고 모두절차와 검찰의 서증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열겠다"며 "검찰이 제출한 입증계획을 토대로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개인비리 순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9호선 석촌~방이 터널 관통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구간 중 지하철 8호선과 만나는 석촌역에서 방이사거리까지 524m의 터널을 '쉴드 터널 공법'을 적용해 지난달 첫 관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쉴드 터널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발파하는 기존 터널 공법과 달리 원통형 다이아몬드 커터 날을 회전시켜 토사 및 암반을 잘게 부숴 수평으로 굴을 파 들어가는 최첨단 공법이다.

2016년 완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서 보훈병원까지 총연장 9.14km로 지하철 8호선(석촌역), 지하철 5호선(올림픽공원역) 등 환승정거장 2개소를 포함한 총 8개의 정거장이 건설되며 현재 3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은 백제 초기 적석총 등 문화재와 지하차도 및 상가가 밀집돼 있어 소음과 진동이 없는 실드 터널 공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다문화가정과 경주 역사여행

서울시 강동구가 오는 21일 다문화 가족 20여 가정과 함께 경주로 1박2일 역사 여행에 나선다.

주요 일정은 첨성대, 불국사, 안압지 야경, 문무대왕릉 등 경주 일대 대표적인 유적지를 탐방하고 전통문화 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표기

서울시 노원구는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표기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먼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인 4월 30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결혼 이민 여성과 서울나들이

서울시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일 결혼이민 여성 30명과 함께 한성백제박물관으로 '하이, 서울~서울나들이'를 떠난다.

센터는 서울 나들이와 식생활교육, 공동 육아 프로젝트, 자녀 언어발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한다.

크림 합병, 서방·러 新냉전시대로

푸틴 강공에 미·EU 잇따라 추가제재 검토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을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이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크림공화국 합병 조약을 체결하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경고했다.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공화국 총리와 크림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에 앞서 "크림은 떼어낼 수 없는 러시아의 일부였으며 러시아의 구성원으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 러시아가 크림에 이어 다른 지역도 합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병 조약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상하원의 비준을 얻어 발효된다.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조약 비준 절차가 이번 주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냉전 시대의 개막을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크림 사태가 소련 해체 후 지속돼온 국제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그에 견줄만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가 자국과 주변국의 안보에 위협을 받을 경우 그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러시아의 '강공'에 미국과 유럽연합(EU)등은 2차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백악관은 "크림반도를 공식 합병하려는 러시아를 규탄한다"며 "앞으로 제재 조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크림 주민투표와 독립선언, 푸틴 대통령의 크림 합병 등이 모두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도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수출 허가를 중단하고 해군의 러시아 방문 및 합동훈련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크림공화국 수도 심페로폴의 우크라이나 군부대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1명을 포함해 2명이 사망했다. 푸틴 대통령이 합병 조약에 서명한 지 몇 시간 만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한 뒤 이 지역에서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점령당한 대만 의사당 대만 학생운동단체 회원과 활동가 등 200여 명이 18일 입법원(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번 시위는 집권 국민당이 전날 야당 소속 의원들과의 몸싸움 속에 일방적으로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강행하려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입법원 본회의장이 시위대에 의해 점거된 것은 대만 헌정 사상 처음이다. /AFP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여객기 몰디브서 목격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실종된 지난 8일 인도 남쪽에 있는 섬나라 몰디브에서 주민들이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말레이시아 언론은 몰디브 뉴스 포털 '하비루'의 보도를 인용, "몰디브 쿠다후바두섬 주민 다수가 '낮게 비행하는 점보제트기'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은 이 항공기가 흰색에 빨간색 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의 특징과 유사하다.

한 목격자는 "제트기가 섬 위로 그렇게 낮게 나는 것은 처음 봤다. 분명히 수상비행기는 아니었다. 비행기 문까지 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낮았다"고 말했다.

몰디브는 인공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실종 항공기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이날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여객기가 실종된 8일 이후 육지와 바다에서 어떤 폭발이나 충돌도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실종 여객기가 온전한 상태로 바다에 추락했거나 인도양의 섬 등 모처에 착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CTBTO는 설명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된 지 11일을 지나면서 사고기는 상업 여객기로는 사상 최장 실종 기록을 세웠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19일 보도했다. 또 실종된 항공기를 찾기 위한 수색에 주변국을 포함해 26개 국가가 참여, 사상 최대 규모의 '다국가 연합 수색 작전'으로도 기록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미국 시애틀 헬리콥터 추락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도심에서 방송사 헬리콥터가 교차로로 추락, 2명이 숨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헬리콥터는 이날 오전 코모-TV 방송사 사옥 옥상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헬기는 도로 위 자동차 3대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당시 새어나온 연료로 인해 차에 불이 붙었다.

이번 사고로 헬기 조종사와 사진기자 등 2명이 사망했고 자동차 승객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헬리콥터가 이륙한 뒤 곧바로 기울어졌다"면서 "이후 거대한 화염이 헬기 전체를 뒤덮었다"고 말했다.

에드 머리 시애틀시장은 "시 당국이 헬리콥터 이착륙장 인허가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손녀 업고 등교 5년 잔잔한 '감동'

metro HongKong



걸을 수 없는 손녀를 업고 매일 등교하는 할머니의 손녀 사랑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쓰촨성 이빈시에 사는 샹치여우(66·사진 아래)는 이른 아침 손녀를 등에 업고 좁은 산길을 따라 등교한다. 이렇게 한 지도 5년이 넘었다. 손녀 치우팡메이(14·위)는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 두 다리로 걸을 수가 없다. 차도 다니지 않는 산골 마을. 샹치여우는 40kg의 손녀를 업고 4km를 걸어간다. 샹치여우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손녀가 학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서다.

몇 년 전 치우팡메이의 어머니는 재혼을 했고, 일을 하러 타지에 나간 아버지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때부터 조부모의 손에서 길러진 치우팡메이는 그 나이에 겪기 힘든 고독과 절망을 느꼈다. 그러던 그는 학교에 가고 싶다는 꿈을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말했다.

치우팡메이는 결국 열 살이 되던 해 푸밍(阜鳴)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할머니가 손녀의 등교를 책임지게 됐다. 예순이 넘은 할머니 등에 업혀 좁은 산길을 등교할 때면 할머니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몸살이 나지는 않을까 치우팡메이는 걱정됐다. 여름이면 항상 가방에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할머니의 땀을 닦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받쳤다. /정리=조선미기자

대형풍선 타고 바다 건너기 '화제'

metro France



남프랑스 니스에서 대형 풍선으로 바다를 건너는 이색 도전을 발표한 남성이 화제다.

오는 4월 높이 4.8m, 길이 19m에 달하는 이 대형 에어범선은 모터 없이 바다를 건너 코르시카섬에 가게 된다. 이러한 이색 도전을 하는 사람은 올해 45세의 스테판 루송(사진)으로 그는 이 프로젝트를 몇 년간 준비해왔다.

◆ 행정적 문제 부딪혀

지난 금요일 처음으로 공개된 그의 대형 에어범선은 은으로 도금된 커다란 미사일 모양을 하고 있어 사람이 탈 공간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범선 내부의 285㎥에 달하는 공간은 헬륨가스로 채워져 있으며 특별 장치가 들어가 물에도 뜰 수 있다. 또한 기구를 조종하는 공간은 정박시킬 때 사용하는 줄과 연결돼 있다.

이론상으로 기구가 바다를 건너는 일이 가능하지만 여기엔 실제 테스트가 필요하다. 스테판 루송은 "바다 횡단이 가능한지 실험해봐야 하지만 정부에서 몇 주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미 안전 사항은 준수한 상태이고 비슷한 기구가 2007년에도 탄 적이 있는데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약 200kg에 달하는 에어범선이 바다를 건너는 건 9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밥티즈 라 로카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미·중 퍼스트레이디 만난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20~26일 일정으로 중국을 처음 방문한다. 두 딸인 사샤, 말리아와 모친인 메리언 로빈슨이 이번 방문에 동행한다.

미셸 여사는 21일 베이징사범대학 제2부속중학교(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 베이징 고궁박물원(자금성) 등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19일 경화시보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날 일정은 모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동행한다. 두 퍼스트레이디의 회담과 만찬도 이날 일정에 포함돼 있다. 미셸 여사는 22일 베이징대에서 강연을 하고,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인 23일은 만리장성을 찾는다.

미셸 여사의 공식 방중 목적은 중국과의 인적 교류 및 교육 분야 협력 강화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등으로 껄끄러워진 양국 관계를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통해 완화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9일>

코스피	1937.68	(−2.53)
코스닥	542.25	(+1.10)
금리(국고채 3년)	2.83	(−0.01)
환율(원·달러)	1069.00	(−1.70)

대학생 생활비 한달 40만원…5.7% 상승

대학생들의 한 달 생활비가 지난해보다 5.7% 상승한 40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27세 이하 대학생 2382명을 대상으로 새 학기 생활비와 소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생활비로는 외식비가 25.9%로 1위에 올랐다. 품위유지비(19.0%), 교통비(18.5%), 학습비(18.1%) 등이 뒤를 이었다. 생활비로 30만~40만원을 지출하는 대학생이 2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만~50만원(17.9%), 10만~20만원(11.1%), 50만~60만원(5.7%), 60만~80만원(4.4%), 80만~100만원(2.1%), 100만원 이상(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늘어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지갑을 닫은 항목으로는 '품위유지비'(22.5%)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국명기자 kmlee@

SKT·엔씨 손잡은 '리니지 요금제'

통신·게임 1위 업체끼리 업무 제휴 화제

통신·게임업계 공룡 SK텔레콤과 엔씨소프트가 손을 잡았다. 각 사의 장기를 살려 리니지 모바일 정액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이다.

SK텔레콤과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모바일 버전 '리니지 모바일-헤이스트' 전용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19일 엔씨소프트 판교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인기 온라인 PC게임 리니지의 모바일 버전 공개 시범 테스트(OBT)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다.

리니지 모바일 요금제는 SK텔레콤 LTE 이용자를 겨냥한 일종의 정액 부가 서비스다. 리니지를 즐기는 SK텔레콤 LTE 고객이 월 3000원의 이 서비스에 추가 가입하면 스마트폰으로 리니지 모바일게임을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 요금제는 리니지 모바일 버전 출시일인 26일부터 선보여진다.

리니지는 최고 20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는 인기 게임이다. 이번 리니지 전용 요금제 출시로 SK텔레콤과 엔씨소프트는 이용자 확보와 각종 홍보 효과를 올리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 모바일 버전 출시를 앞두고 프로모션 방법을 찾던 중 SK텔레콤과 손을 잡게 됐다"면서 "30일 종각 'T월드 카페'에서 공동 출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012년 넥슨과 함께 'LTE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란 제휴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넥슨 관계자는 "월 정액 3000원으로 카트라이더 모바일게임을 데이터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라며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며 출시 당시 부가 서비스 이용액 이상의 아이템 증정 행사를 열었다"고 말했다.

통신사와 게임 기업의 이 같은 업무협약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장시간 플레이가 필요한 게임 장르 위주로 통신사 제휴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뉴스&뉴스



국산 주꾸미 20% 싸게 팔아요 롯데마트 홍보도우미들이 19일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 수산매장에서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100g·2480원)에 내놓은 국산 주꾸미를 선보이고 있다. 할인 판매 행사는 26일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생산자물가 17개월째 하락

●생산자물가가 국제 유가 하락으로 1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0.9% 떨어졌다. 지난 2012년 10월 0.5% 하락한 이후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두 달째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생산자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금융 회장들 연봉 6억 삭감

●올해부터 금융그룹 회장의 연봉이 대폭 삭감된다. 경영실적연동제 도입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면 최대 70%까지 깎일 수도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은 올해 회장의 기본 연봉을 지난해보다 평균 30% 줄이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평균 20억5000만원에서 올해 14억4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박정원기자

연금복권520 제142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4조	135781
		1조	929206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804510
4등	100만원	각조	38226
5등	2만원	각조	035
6등	2000원	각조	94, 66
7등	1000원	각조	6, 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한국선 2배나 비싼 교육완구 강정화(오른쪽)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영유아 교육 완구에 대한 국가별 가격 비교 및 유통 채널별 판매가격의 비교와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조사 결과 영유아 교육 완구 6개 브랜드 18개 제품 중 3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외국에 비해 국내 가격이 높았으며 최대 97.7%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한은 능력 부족" 인정한 이주열 총재 후보

첫 인사청문회 주요내용

19일 개최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장과의 소통 문제'가 주로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5월 금리 인하 당시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며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 경기, 금융시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에서는 4월 인하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정책 공조가 필요했지만 타이밍을 놓치면서 하반기 경제 회복에 문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당시 경제 부처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면서 '정책 조합'을 강조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대놓고 요구했으나 한은은 시간을 끌다가 5월에야 내렸다.

이 후보자는 또 '한은의 경제 전망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미흡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오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중앙은행 총재의 덕목으로 경제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현실성 높은 정책을 만드는 '업무 수행 능력', 옳다고 확신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 '결단력' 등을 꼽았다. 그는 "취임하게 될 경우 물가·금융 안정, 국민 신뢰 확보, 통화정책 운용수단 확충, 글로벌 금융 협력 지속 등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 총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지난 2012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inji@

세종 모아미래도 '부실 시공' 논란

세종특별자치시 1-4 생활권 L5~8블록에 들어서는 모아종합건설의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설계보다 철근을 50~60% 적게 넣어 부실 시공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일부 동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이 지난 17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15개 동 중 4개 동 20개소에 대해 샘플 조사한 결과 16개소가 벽체 수평철근 실제 배근 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된 것으로 나타난 것. 수평철근 배근 간격이 넓으면 흔들림에 취약해 내진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행복청은 이번 부실 공사에 대해 철근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인 청화기업이 모아종합건설과 하도급액을 두고 마찰을 벌이다 고의로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복청은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정밀구조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집안일 잘하는 '슈퍼대디' 찾습니다 19일 서울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모델들이 가사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리는 '슈퍼대디 선발대회' 사진 콘테스트를 홍보하고 있다. 응모 방법은 주부들이 원하는 자상한 남편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사연을 한경희생활과학 홈페이지 또는 공식 페이스북에 오는 31일까지 올리면 된다. /연합뉴스

600만원 월급자 수령액↓

이달 월급 개정세법 첫 적용… 연봉 7000만원 미만자 원천징수 줄어

소득세 최고 구간(38%)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직장인의 급여일이 집중된 이번주 후반부터 연봉 기준 총 급여 7000만원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의 급여 봉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변화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으로 반영하는 데 1~2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일부 기업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주기도 한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월 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 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난다.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 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 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만~39만원씩 늘어난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은행도 보험사도 '지점 줄이기'

국민은행 55개 감축 등 비용 절감 위한 몸부림

금리 인하 기조와 영업환경 악화로 금융사들이 영업점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은행은 이미 지점 수를 대폭 줄였으며 이 영향은 보험권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미 지점을 상당수 폐쇄하거나 통폐합해 그 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위치가 가까운 지점들을 통폐합해 지점 수를 55개 감축한 바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정리할 계획이다. 우리와 하나은행도 각각 5개와 10개의 지점을 줄일 예정이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도 5개를 줄이고, HSBC은행은 금융위원회에서 소매금융 폐쇄 본 인가가 나는 대로 11개 지점을 없앤다. SC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지점 25%를 없앨 예정이다.

은행권이 이처럼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저금리·저성장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4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보험권도 영업점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들은 우선 사업가형 점포를 대폭 줄일 예정이다. 한때 유행처럼 늘었던 사업가형 점포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가 쉽지 않고 선지급 수수료 등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계약직으로 고학력 지점장을 채용하고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한 게 사업가형 점포로, 보험사 MS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계약관계다 보니 책임감이 다소 떨어지고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먹튀 논란, 선지급 수수료로 부작용 등 문제점이 부각되며 점차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원기자 pjw89@



158g짜리 카메라 'NX 미니'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비욘드 뮤지엄에서 열린 '삼성전자, 미러리스 카메라 NX 미니' 론칭 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NX 미니는 두께 22.5mm, 무게 158g의 초경량으로 휴대성을 높이고, 회전식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공유 기능을 통해 셀피(Selfie, 본인 촬영)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하면 경품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고객을 유치하려는 증권사들의 경품 경쟁이 뜨겁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장펀드 가입 고객에게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나 농협 건강혼합잡곡 7종 세트(2kg)를 증정한다. 월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1년 이상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조건이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 말까지 월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 고객에게 최대 3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준다.

하나대투증권은 가입 고객에게 월납입액 1~2%를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예스24' 포인트로 적립해 가입 1년 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선착순 가입 고객 2014명에게는 국민관광 상품권 2만원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은 6월 말까지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한 고객에게 최대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한국투자증권은 5월 말까지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 1만원어치를 준다. 이후 추첨을 통해 6명에게 노트북, 태블릿 PC, 명품 카드지갑 등을 제공한다.

지난 17일 일제히 출시되며 기대를 모은 소장펀드는 이틀간 30억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이틀간 총 2만8432계좌, 30억7300만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가치투자 상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첫날 소장펀드 자금의 60%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에 몰렸다.

소장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2015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가입 후 10년 동안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김현정기자 hjkim1@

해마다 임금 오르는 '연공급' 손본다

직무·능력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배포

정부가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매뉴얼 배포에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급속한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이고 기업에 부담을 더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70%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는 연공급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연공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청년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매뉴얼은 분석했다.

매뉴얼은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임금 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 가치, 직무 수행 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 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주영기자

삼성 '프리미엄 가전 삼총사' 야심

삼각 벽걸이 에어컨·셰프 콜렉션 냉장고·UHD TV로 글로벌 공략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프리미엄 벽걸이 에어컨,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초고화질(UHD) TV와 같은 프리미엄 TV 등을 잇달아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는 18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2014 모스트라 콘베뇨(Mostra Convegno)'에서 고효율 시스템에어컨과 가정용 에어컨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받은 것은 프리미엄 벽걸이 에어컨 'AR9000'이었다. AR9000은 이번 행사에서 트라이앵글 디자인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별도 전시돼 집중 조명의 혜택을 받는 '클래스 A' 제품으로 선정됐다.

프리미엄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슈퍼 프리미엄 제품 전략도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셰프컬렉션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차세대 키친 가전 라인업 중 첫 번째 제품인 '셰프컬렉션 냉장고'의 국내 출시를 알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슐랭 3스타 셰프들과 공동 기획·개발된 셰프컬렉션 냉장고는 요리의 맛과 향,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신선한 재료라는 셰프의 철학이 반영된 전문 푸드케어 냉장고다.

1000ℓ 초대용량을 자랑하는 셰프컬렉션 냉장고는 출고가도 589만~739만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향후 슈퍼 프리미엄 키친 가전 라인업으로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등의 제품을 잇달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18~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국제 공조 전시회인 '2014 모스트라 콘베뇨'에서 최고효율 시스템에어컨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TV 시장도 커브드 UHD TV를 앞세워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삼성전자는 시야 영역을 한층 넓혀 실제보다 화면이 커 보이는 '파노라마 효과'를 선사하고 평면 TV보다 더욱 선명한 화질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커브드 UHD TV를 공개하며, 글로벌 TV 시장에서 9년 연속 1위의 위업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략 제품인 78·65·55형 커브드 UHD TV와 세계 최대 105형 커브드 UHD TV 등 다양한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통해 'UHD TV=삼성'이라는 공식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에 주력하는 이유는 경기가 어려워도 초고가 제품의 경우 '살 사람은 산다'라는 인식 때문에 차라리 초고가 제품을 양산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한국, 중동 등의 경우 가격보단 품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엄영훈 삼성전자 생활가전(CE) 부문 전략마케팅팀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중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비중이 글로벌 시장에서 40%대에 육박하는데 이는 2011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라며 "국내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이동통신 3사 합동 보조금 감시단 구성

이동통신 3사가 과다 보조금 근절을 위해 합동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대리점을 직접 감시한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마련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6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통신 사업자들이 직접 나서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 "통신요금을 더 낮출 여지가 있지 않은가. 개인 맞춤형 요금제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최 장관의 요구에 보조금 자체 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가입자가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는 '분리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이는 '공짜폰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오바마도 즐기는 뉴욕 치즈케이크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모델들이 미국 뉴욕의 유명 치즈케이크 '주니어스' 입점을 기념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뉴욕 3대 치즈케이크 브랜드 중 하나인 '주니어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유명인들이 즐겨 먹는 치즈케이크로 유명하다. /뉴시스

'라이나 실버암보험' 80세로 확대

라이나생명은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암 발생자는 인구 10만 명당 남자 412명, 여자 397.7명으로 2009년 대비 4% 증가했다. 특히 75~79세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805명으로 전체 평균인 405명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높은 수치다.

이렇게 고령자에게 암보험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을 반영해서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이 상품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품 문의 전화: 080)951-8585 /박정원기자 pjw89@

덕이 분양 성공 신동아파밀리에 공매 처분 위기

일산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가 공매처분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시행사인 드림리츠와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드림리츠는 19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와 대주단이 계약자의 입주 및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고의로 거부,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사업을 파산시켜 공매 처분을 획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종전 드림리츠 회장은 "해당 사업은 애초 분양률이 92%에 이를 정도로 성공한 프로젝트였다"며 "신동아건설의 부실 시공 및 고의적 하자 보수 거부로 인해 입주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대규모 소송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 지연 및 소송 사태를 유발한 신동아건설이 사죄의 마음을 갖기는커녕 대주단인 농협·우리은행과 공모해 계약자들의 입주를 막고 사업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뒤 아파트를 헐값에 공매 처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드림리츠 측의 주장에 대해 신동아건설은 "시행사가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장을 동의받지 못해 2년 이상의 기한 이익 상실 상태로 이번 공매가 원활히 진행될 시 파산될 위기에 처하자 입주를 진행한 계약자들을 볼모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을 왜곡시켜 자신들의 시행 이익을 지키려는 속셈"이라고 반박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취준생 절반 "졸업 유예"

취업 준비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학 졸업을 유예해봤거나 앞으로 유예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 1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3.2%(594명)가 졸업 유예를 한 경험이 있거나 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졸업을 유예하느라 대학에 지불한 비용은 평균 24만원으로 집계됐다.

졸업 유예자가 많은 전공은 경상계열(60.2%)이 꼽혔다. 이어 인문계열(59.3%), 사회과학계열(54.7%), 이공계열(53.6%), 예체능계열(37.6%) 순이었다. /이국명기자 kmlee@

500원 지폐로 기적 일군 '경제 영웅'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세계가 놀란 기업가 정신 내일 13주기 앞두고 주목



소를 몰고 방북하는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 /뉴시스



정주영 회장이 건조 중인 선박의 프로펠러 위에서 직원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현대중공업 제공

오는 3월 21일 아산(峨山)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13주기 기일을 앞두고 정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정 회장은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리 아산마을에서 6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30년 송전소학교를 졸업했으나 가난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정 회장은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일제강점기인 1940년부터 자동차 정비회사인 아도 서비스 인수를 바탕으로 1946년 4월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하고, 1947년 5월에는 현대토건사를 설립하면서 건설업을 시작해 성공을 거뒀다. 1950년 1월 현대토건사와 현대자동차공업사를 합병, 현대그룹의 모체가 된 현대건설을 설립하고 1971년 현대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에도 정 회장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6·25전쟁 후 점차 늘어가는 건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1964년 6월 시멘트공장을 세우고, 계속해서 해외 건설 시장 개척과 울산 조선소 건설, 서산 앞바다 간척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업을 주도했다. 특히 현대조선소 건설과 관련된 창립 실화는 한 편의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로서 오늘날에도 세계 해운·조선업계에서 하나의 신화로 회자되고 있다.

현대조선소 설립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정 회장은 1971년 9월 영국 버클레이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 런던으로 날아가 A&P 애플도어의 찰스 브룩 롱바텀 회장을 만났다. 조선소 설립 경험도 없고, 선주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은행의 대답은 간단히 "노(NO)"였다. 정 회장은 그때 바지 주머니에서 500원 짜리 지폐를 꺼내 펴 보였다. "이 돈을 보시오. 이것이 거북선이오.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전인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단지 쇄국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었을 뿐, 그 잠재력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재치 있는 임기응변으로 롱바텀 회장을 감동시켜 해외 차관에 대한 합의는 얻었지만 더 큰 문제는 선주를 찾는 일이었다.

그때 정주영의 손에는 황량한 바닷가에 소나무 몇 그루와 초가집 몇 채가 선 초라한 백사장을 찍은 사진이 전부였다. 정 회장은 봉이 정선달이 되어 황량한 바닷가에 소나무 몇 그루와 초가집 몇 채가 선 미포만의 초라한 백사장 사진 한 장을 쥐고 미친 듯이 배를 팔러 다녔다. 결국 정주영은 그리스 거물 해운업자 조지 리바노스를 만나 26만t짜리 배 두 척을 주문받았고, 조선소 건립과 동시에 2척의 배를 진수시켜 세계 조선사에 유일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렇게 정주영이 개척 정신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이뤄낸 현대조선소는 현재 세계 최대의 규모 중공업회사로 성장했다. 이처럼 정 회장은 한국의 산업화, 국제화를 이루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선도해나가 '현대그룹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정 명예회장은 한국 산업 발전을 이끈 기업가이자 사회사업가이며 교육자이자 정치가로서 한 시대를 살다간 뛰어난 인물인 동시에 우리 시대의 역사적 위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정 회장의 회고록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에 담긴 그의 도전정신과 삶의 철학이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SK건설 '공정거래 이행' 선포



SK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G.plant)'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및 운용, 하도급 거래 내부 심위위원회 설치, 서면거래 보존 등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도입을 확정했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 조건 개선, 기술 개발 지원과 보호 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꾸준히 실천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과 SK건설 임직원, 57개 비즈파트너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선옥기자

포스코 회장·임원 급여 자진 반납

포스코 권오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이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사내 임원회의에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소기의 성과와 수익성을 구현할 때까지 기본급 30%를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새 비전을 '포스코 더 그레이트'로 정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포스코를 말하며, '양보다는 질' '매출액보다는 이익'을 많이 내 더 많은 회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임원들이 수익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윤동준 부사장이 "임원들도 자율적으로 급여반납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로 10%에서 25% 삭감하기로 했다. /김두탁기자

문정 '엠스테이트' 상업시설 M7 분양중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2블록 '엠스테이트(MSTATE)' 상업시설 엠세븐(M7)이 분양 중이다.

엠스테이트는 상업시설을 비롯해 오피스·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등이 한 곳에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7층, 3개동 규모로 전체 연면적이 삼성동 코엑스(11만9000㎡)보다 넓은 15만8198㎡에 달한다.

그중 M7은 연면적 3만6449㎡, 점포 수 총 230여 개 규모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지상 1층 기준으로 3.3㎡당 2900만원대이며, 송파 일대 상업시설 분양가보다 5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시행사는 한국자산신탁, 위탁사는 ㈜엠에스뉴브가 선정됐고, 국내 시공능력 평가 1위의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사업의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8호선 문정역 직통으로 연결

M7은 문정지구 내에서도 알짜 입지로 평가받는다. 택지지구의 경우 역세권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 등의 가격 차를 보이기 마련인데, 엠스테이트가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정지구 좌측으로 위치한 KTX수서역도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이라 M7 준공 시기에는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다.

SH공사가 이벤트·문화공간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컬처밸리는 물론, 광장과도 직접 접해있어 고객들이 모이는 깔때기 효과가 기대된다. 또 컬처밸리·광장과 같은 메인 시설물과 함께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돼 향후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은 2016년 9월 예정이다. 문의 번호: 02)3432-5714

/박선옥기자 pso9820@

한국모바일인터넷 '제4이통' 6수 도전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19일 제4이동통신을 위한 LTE-TDD 이동통신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 이번이 6번째 도전이다.

앞서 KMI는 지난해 11월 14일 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 지난달 27일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 시한인 오후 6시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 보증금 제출을 하지 못해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KMI 측은 국내 현실상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주사들을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이후 120일의 허가 과정을 고려할 경우 전국망 서비스 개시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서둘러 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고 밝혔다.

KMI는 이번 허가 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수도권과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 시 대상의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또한 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으로 변화가 없으나 주주 수를 614개 주주에서 579개 주주로 조정하고, 설립 자본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허가 후 이뤄질 현물 출자와 벤더파이낸싱, 수천억원에 달하는 출자 협약 등의 서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영기자 ljy0403@

<사진 기반 SNS>

'부자 놀이터' 인스타그램

글로벌 이코노미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탈리아 왕자'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캐빈 사코(20). '부잣집 도련님'인 사코는 유명 배우나 가수는 아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한다. 상류사회의 화려한 삶을 담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덕분이다.

최근 미국 일간 LA타임스는 사코와 같은 부유층 자녀들과 젊은 갑부들이 인스타그램을 사교의 장이자 '놀이터'로 애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부동산 재벌의 아들인 사코. 그는 세계 각국의 또래들로부터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프랑스 남부 리비에라에 있는 펜트하우스의 야외 욕조에서 찍은 그의 사진은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얼마 전 사코는 프랑스 파리에서 자신의 생일 축하 파티를 성대하게 열어 친구들과 1만 유로(약 1490만원)를 흥청망청 쓰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파티와 술, 내가 여행한 장소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의 사진을 공유해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팔로워들이 다양한 코멘트를 남기죠. 제가 환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며 부러워하는 글이 많아요."



캐빈 사코가 프랑스 남부의 펜트하우스 야외 욕조에서 찍은 사진. /LA타임스

순금욕조서 목욕하고 값비싼 샴페인 마시고 상류사회 1% 삶 공개 젊은이들 관심 한몸에

사코를 비롯해 부자 부모를 둔 10대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톱스타로 활약하며 엄청난 숫자의 팔로워들을 이끌고 있다. 미국 비벌리힐스에 사는 모건 스튜어트는 2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자랑한다. 개인 전용기 앞에서 찍은 사진 등으로 재력을 과시한 결과다.

이들은 부모의 돈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스포츠카를 장만하고 순금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프랑스의 명품 샴페인 동 페리뇽을 마신다. 또한 이들이 즐기는 사치스러운 삶의 흔적들은 인스타그램의 사진은 물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공개되고 있다. 저녁 황금 시간대 방송되는 '왕자·공주' 리얼리티 쇼의 시청자는 550만 명이 넘는다.

'인스타그램 스타'들을 비난하는 시청자도 적지 않지만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위 1%'의 삶에 대한 동경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식당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신 뒤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이들의 '돈 자랑'을 욕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젊은층이 많다는 설명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애플 "저가시장 잡아라"

아이패드2 후속 50만원대 '레티나' 출시

저가 시장 개척에 나선 애플의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애플은 18일(현지시간) 메모리 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인 8기가바이트(GB) 아이폰5C를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중국 등 5개국에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영국 판매가가 429파운드(약 76만1000원)로 16GB 모델에 비해 40파운드(약 7만1000원) 저렴하다. 중국 판매가도 4088위안(약 70만6000원)으로 16GB 모델보다 400위안(약 6만9000원) 싸다.

애플은 이날 아이패드2를 단종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대화면 저가 기종으로 '아이패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사진)를 선보였다. 이 후속 모델은 2012년 11월에 나왔다가 한동안 단종됐던 4세대 아이패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주요 사양은 화면 대각선 길이 9.7인치, 해상도 2048×1536, 화소 밀도 264인치당픽셀(ppi)인 레티나 디스플레이, 애플 A6X 시스템온어칩(SoC), 1080p 영상 촬영이 가능한 500만 화소 아이사이트 카메라, 배터리 사용 시간 10시간 등이다.



하지만 가격은 저렴하다. 16GB 와이파이 전용 모델 기준으로 국내에서 50만원, 미국에선 399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다.

애플의 이 같은 가격 인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저가 공세를 막아내는 동시에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저가형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스마트폰·태블릿 시장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혁신이 더 이상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가격 경쟁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태블릿 시장의 가격 인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세계 치즈 경연대회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열린 세계 치즈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스위스 치즈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 22개국 유가공 전문업체들이 2600여 종류의 치즈를 가지고 출전했다. /AP 연합뉴스

알리바바 기업공개 수수료 4억달러 '반색'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높은 수수료 수입을 올릴 것에 반색하고 있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의 2%를 미 은행에 수수료로 지급할 전망이다. 이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지불했던 수수료율(1.1%)의 두 배 수준이다.

알리바바의 IPO 규모는 로드쇼 등이 열리지 않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월가는 25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페이스북의 161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미국 기업공개 사상 최고치다. 알리바바의 공모 금액이 200억 달러에 그치더라도 수수료는 4억 달러에 이른다.

알리바바의 IPO에는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공개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월가의 수수료 수입 순위에서는 4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월가에 최대의 수수료를 제공했던 기업은 2008년 공개한 비자카드다.

알리바바와 투자은행들은 다음 주에 만나 수수료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한 4월 첫 주에 다시 만난 뒤 미국 증권 당국에 IPO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공개는 여름께 이뤄질 전망이다. /조선미기자

양말 한 켤레에 무려 154만원!

한 켤레에 150만원을 훌쩍 넘는 양말이 등장해 화제다.

뉴질랜드 베이오브플렌티타임스는 더글러스 크릭이 생산하는 섬유를 사용해서 만든 양말이 영국 런던에 있는 고급 신발 액세서리 판매장인 해리스에서 한 켤레에 1442달러(약 154만원)에 팔리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양말은 '섬유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최고급 섬유인 서벨트를 사용해 천연적일 뿐 아니라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 캐시미어보다 가볍고 부드러우며 탄력성이 좋아 주름도 가지 않는다.



/베이오브플렌티타임스 제공

특히 100% 뉴질랜드산 붉은 사슴 솜털을 이용해 만드는 서벨트의 희소성도 눈길을 끈다.

붉은 사슴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솜털로는 1년에 단 20g 정도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더글러스 크릭의 리처드 케델 대표는 "타우랑가에서 생산된 섬유를 이탈리아로 보내 거기서 양말을 만든다"며 "수공으로 짜고 염색하는 이 섬유는 아주 희귀한 것으로 뛰어난 기술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日 20개월 연속 무역적자

'무역 강국'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2월 무역수지가 8003억 엔(약 8조46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1979년 이후 2월 무역수지로는 최대의 적자액이다. 특히 시장 예상치인 6000억 엔보다 적자폭이 컸다. 게다가 20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일본 굴욕의 원인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화력발전용 액화천연가스(LPG) 등의 연료 수입이 계속 늘어난 데다 자동차, 전자 부품 등의 수입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입은 전년 같은 달보다 9.0% 늘어난 6조6003억 엔으로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한 5조8000억 엔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무역 적자액이 1108억 엔으로 24개월 연속 적자다.

미국에 대해서는 4837억 엔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폭은 14개월 만에 감소했다. /이국명기자

‘Why?’ 책 속 공룡, 내 손 안 꿈틀꿈틀

교육콘텐츠 스마트 기기·앱 날개 달고 승승장구







IT 제품을 기반으로 한 교육·학습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 예사롭지 않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수요가 늘고 제작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질이 좋아진 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내 최고 인기 어린이 학습 만화 ‘와이?(Why?)’ 시리즈를 동명의 모바일 앱으로 만든 것이다.

KTH가 제작한 ‘Why? 키즈 똥’을 비롯해 ‘곤충’ ‘공룡’ ‘우주’ ‘날씨’ ‘독있는 동식물’ 등은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 10년간 4000만 부가 팔린 ‘Why’ 시리즈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시각·청각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Why? 키즈 공룡’을 예로 들면 화면 곳곳에 숨어있는 공룡을 터치했을 때 귀여운 소리와 함께 숨어있던 공룡이 튀어나와 예측 불가능한 재미와 놀라움을 줌으로써 유아들이 공룡에 대해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다.

또 공룡알을 깨뜨려 퀴즈를 푸는 방식을 도입해 터치 인터랙션과 생생한 사운드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들 앱은 출시 당시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에서 1위를 한 것은 물론 지금도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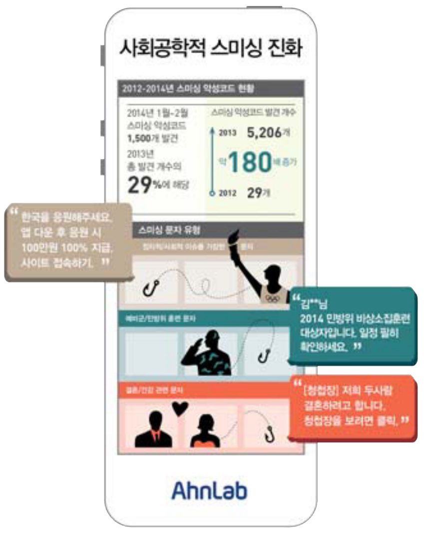
태블릿 PC로 영어를 공부하는 ‘뇌새김’을 서비스하는 벤처업체 위버스마인드는 연 매출 100억원을 올리는 중견 회사가 됐다.

그림으로 재미있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 ‘뇌새김 워드’를 비롯해 태블릿 PC와 1대1로 대화를 나누며 영어 회화를 학습하는 ‘뇌새김 토크’, 영어 말하기시험 대비를 위한 ‘뇌새김 토익스피킹’으로 구성된 ‘뇌새김’ 영어 시리즈는 기존 어학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사실상 태블릿 PC가 살아있는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영어 과외 학습 방식을 따르면서 첨단 모바일 기기가 주는 플랫폼의 강점을 수용한 결과다. 위버스마인드는 ‘뇌새김 중국어’도 출시한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도 머지않아 태블릿이나 대형 스마트폰으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콘텐츠와 관련한 법적 문제만 잘 해결되면 모바일 IT기기를 활용한 교육 시장은 퀀텀점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



‘변신의 귀재’ 스미싱

문구 바꿔가며 2년새 52배 늘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앱 나왔어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편승해 사용자의 불안감을 노린 이 같은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랩은 올해 1~2월 발견된 스미싱 악성코드 수가 1500개로 2012년보다 52배나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가벼운 유머, 예비군·민방위 훈련 통지, 정치·사회적 이슈 등은 물론 스마트폰 보안 강화 통지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구도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 3일로부터 각종 스미싱을 방지하기 위해 폰뱅킹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위원회에서 알림’ ‘폰뱅킹 보안 강화를 위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시길 바랍니다’ 등 자칫하면 속기 쉬운 스미싱도 많다는 지적이다.

‘[청첩장]저희 두 사람 하나가 되기를 약속하려 합니다’ ‘고객님은 2014년 암검진 대상이오니, 꼭 암검진 받으십시오’ ‘재미있는 사건’ 등 결혼과 건강을 챙기는 봄철을 노린 스미싱도 증가세다.

안랩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실행을 자제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스마트폰 없는 하루와 무소유

얼마 전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출근했다.

‘점심때 만나기로 한 사람과 어떻게 연락하지?’ ‘회사에서 찾으면 어쩌나’ 싶어 불안한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았다.

가끔 신문에 나오는 ‘휴대전화 집착’ 증세에 대한 기사를 보며 ‘전화기 없다고 하늘이 무너지나?’ 하고 혀를 찼던 기억이 포개졌다.

일단 집에 두고 온 전화로 연락해 가족을 거쳐 점심 미팅 당사자 연락처를 알아냈고 큰 문제 없이 식사를 같이했다. 첫 미션을 해결한 까닭일까.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연결한 뒤에는 스마트폰의 부재가 더더욱 느껴지지 않았다. e메일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연락처, 신문사 동료들로 채워진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소통했다.

같은 부서의 상사는 ‘하루 종일 전화를 왜 받지 않느냐’며 메신저로 다그쳤지만 사정을 이야기하자 ‘다행이다. 크게 다친 줄 알았다’며 걱정까지 해주신다.

다른 근무지로 이동할 때 스마트폰이 없으니 심심하긴 했다. 어쩔 수 없이 가방에 모셔 둔 책을 꺼냈다.

인터넷 만물상점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의 일대기를 다룬 책인데 한번 잡으니 놓기 어려울 정도로 재미있었다.

베조스는 스티브 잡스만큼 직원들을 몰아붙이는 ‘현실 왜곡장’의 대가이지만 멍청할 정도로 크게 웃고 20대 중반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평범한 아저씨이기도 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면 베조스의 시시콜콜한 부분을 알 수 있었을까.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법정 스님은 지인으로부터 난초 화분 2개를 선물받아 귀하게 키웠다.

그런데 어느 날 햇볕에 화분을 놔두고는 깜빡한 채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난초가 시들었다. 다시 정성을 다해 가꿔 원상회복을 했지만 이후에는 난초가 신경이 쓰여 외출을 삼갔다.

하지만 3년 뒤 난초를 친구에게 선물하면서 서운함보다 더 큰 홀가분함을 느꼈다. 이후 스님은 조금씩 버리는 삶을 살았다.

법정 스님의 불후의 명작 ‘무소유’의 일부분이다. 3년 기른 난초는 아니지만 반나절 동안 내 품을 떠났던 스마트폰 덕에 ‘버리는 삶’의 맛을 살짝 음미할 수 있었다.



SKT 등급 차별 없이 ‘무한멤버십’ SK텔레콤이 20일부터 연말까지 T멤버십 할인 한도를 없앤 ‘무한멤버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멤버십 등급별 할인 한도가 사라지며 이용자 간 멤버십 할인 공유도 가능해진다. /SK텔레콤

구글 OS ‘안드로이드 웨어’ 출시



구글은 19일(한국시간) 입는 스마트기기를 위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웨어’를 공개했다. 이는 시계 등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위한 OS다. 이에 따라 LG전자가 ‘G 와치’, 모토로라가 ‘모토 360’(사진) 등 스마트 손목시계를 내놓기로 했으며 패션 시계 업체인 파슬 그룹과 삼성전자, HTC 등도 비슷한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선임부사장은 이날 회사 공식 블로그에 안드로이드 웨어의 출시를 알리고 개발자 도구를 공개했다.

안드로이드 웨어 협력사는 HTC, 삼성전자, LG전자 등이며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 칩 제조업체도 포함돼 있다.

이 OS를 사용한 기기들은 사용자가 음성으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하고, 심장박동 등 건강과 체력 상태를 점검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TV 등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하는 기능도 있다. /박성훈기자



남녘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에서는 매화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 봄 최고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매화야, 나 실컷 싱숭생숭할게

22~30일 광양 섬진마을 '국제매화문화축제'

봄꽃이 만발하는 시기, 섬진강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봄꽃인 매화를 만날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봄 매화, 여름 매실로 우리 함께 힐링합시다!'라는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남 광양시 섬진마을에서 열리는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다. 남녘의 첫 봄소식을 알리는 매화꽃과 매화 향에 취해보자.

◆매화·매실의 본고장

그 원산지가 중국이지만 광양은 '매화의 본고장'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또 매화나무의 열매인 매실은 식용 또는 약용으로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과실로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에서만 생산된다.

이에 축제는 광양의 자랑인 매화군락지에서 매화와 매실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축제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광양의 매실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매실 구매 상담소가 운영되고 매실과 함께 광양지역의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마련된다. 또 전국 광양 매화 사진 촬영대회, 매실 음식 경연대회, 매화꽃길 음악회, 매실 건강 체험관 등의 행사도 준비된다.

◆지루할 새 없는 섬진강의 봄

이와 함께 섬진강의 봄을 만끽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광양 시립국악단 공연, 매화 문화권 자매·우호도시 초청 공연, 매화 합창단 공연 등의 공연 행사가 이어지고 매화 사생대회, 매화 압화 체험, 매화 탁본, 소망의 벽 등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특히 광양시 다압면 청년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매화 노래자랑은 영호남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 축제로 준비되며, 29일과 30일 이틀간 다압면 메아리 휴양소에서 진행되는 1박2일 메아리 캠핑은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연인이나 친구끼리 참여해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7일부터 광양 꽃축제도 열려

이와 함께 섬진강의 봄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광양 꽃축제도 27일부터 30일까지 광양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돼 광양의 봄을 더욱 화려하게 한다.

또 축제를 개최하는 광양시청과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위원회는 방문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축제장 일원에 방역 초소를 설치했으며 특히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섬진강에 임시 부교를 마련해 방문객들의 축제장 접근을 용이하도록 했다.

더욱이 광양시청은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시내 곳곳의 주요 도로변에 다양한 종류의 봄꽃을 심었으며 공한지에도 조화류 등 경관 작물을 식재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3월 22~30일(토~일)
- 장소: 전남 광양시 섬진마을
- 문의: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위원회 061)797-3714

예술 감상·삼림욕…1석 2조 힐링코스 걷자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봄 정취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봄나들이 코스 중 하나는 자연을 벗 삼아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인데 최근에는 걸으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몸을 치유하는 등 이색적인 걷기 코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작품따라 걷는 안양 예술공원

안양 예술공원은 안양 유원지가 예술 공간으로 변신한 곳으로 예술 작품들이 삼성천과 삼성산 등산로 주변 곳곳에 설치돼 있어 자연 속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사진)에서 선보인 작품 52점이 곳곳에 위치해 있으며 등산로도 가파르지 않고 가벼운 도보로 즐길 수 있는 코스라 봄나들이로 안성맞춤이다. 또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예술 작품들이 자연 속에서 또 하나의 갤러리를 만들어준다.

◆'치유 숲'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경기 양평군 용문산 자락에 위치한 산음자연휴양림은 폭산과 봉미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맨발로 걷기 체험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를 활용한 아로마테라피, 음이온 명상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산소 배출량이 풍부한 소나무 등 침엽수가 많은 치유의 숲길도 형성돼 있다.

◆배움 있는 옛길, 경기 삼남길

삼남길은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6개 길 중의 하나로 한양에서 남태령을 넘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삼남지방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경기도에서는 옛 문헌을 고증해 삼남길 구간을 복원했으며 각 구간마다 역사·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옛길을 답사하며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경기도 옛길 아카데미', 옛길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클린 옛길 자원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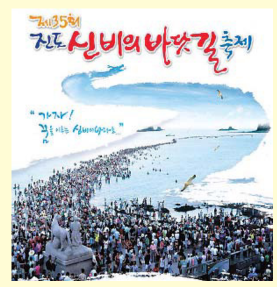
/황재용기자

구석구석



◆구례 산수유꽃축제
- 날짜: 3월 22~30일
- 장소: 전남 구례군 지리산 온천관광단지

지리산 자락을 노랗게 물들인 산수유꽃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에서는 풍년 기원제를 시작으로 토종 어류 방류 행사, 열린 시학회, 시낭송회, 마당극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또 지리산 온천수와 산수유를 이용한 산수유 웰빙 족욕탕, 산수유차를 마실 수 있는 산수유 카페테리아, 산수유 떡메치기, 산수유 꽃담길 하트랠리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 날짜: 3월 20일~4월 2일
- 장소: 전남 진도군 회동리

축제는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바닷길 열림'을 활용한 킬러 콘텐츠 프로그램이 강화되며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 볼거리와 체험 코너 등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논산딸기축제
- 날짜: 4월 2~6일
- 장소: 충남 논산시 논산천 둔치 및 딸기밭

논산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딸기 주산지로 축제에서는 논산 딸기를 실컷 맛볼 수 있다. 또 딸기 네일 아트, 딸기잼 만들기, 딸기급 시음회 등의 딸기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행사와 가요제, 연극 등의 공연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게다가 논산의 각 딸기 농가에서도 개별적인 딸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사한다.

피자·샐러드·라이스볼…봄꽃보다 화려

외식메뉴 '비주얼 마케팅' 이름도 블루밍·플라워리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다. 외식업계에서는 만물이 새봄을 맞아 고객들의 시선부터 먼저 붙잡는 '비주얼 마케팅'에 한창이다. 컬러·디자인 등 눈이 먼저 맛있는 외식업계의 봄 신메뉴를 소개한다.

도미노피자가 새롭게 선보이는 '더블크러스트 블루밍 피자'(왼쪽 사진)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활짝 핀 노란 봄꽃을 연상시킨다. 도우 위에 토핑한 둥근 형태의 수제 소시지는 피자의 볼륨감을 높여 마치 꽃이 피어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그 위에 얇게 썰어 올린 파인애플 카르파치오는 꽃잎 모양을 닮았다. 또 피자 끝 부분에 가득 올려진 포카치아 큐브 엣지는 재미있는 모양으로 입체감을 더하고, 곳곳에 피어오른 스윗미니칠리의 강렬한 빨간 컬러는 식욕을 자극한다.

애슐리에서 이번 시즌 새롭게 소개하는 '플라워리 라이스볼'은 데리야키 소스로 맛을 낸 한입 크기의 주먹밥에 건강한 채소와 토마토를 올려 상큼한 색감과 모양을 자아낸다.

아웃백은 슬라이스 스테이크와 새콤한 레몬 딜 비네가렛 드레싱으로 요리한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샐러드'(오른쪽)를 새롭게 출시했다. 허브·토마토·망고·나초칩 및 살사 소스 등이 들어간 샐러드는 식욕을 자극하는 빨강·주황·노랑·녹색을 연출하며 색의 향연을 펼친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는 봄을 맞아 '블루밍 컬러'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유자소스와 봄꽃을 곁들인 황금 송이버섯 샐러드·냉이튀김·꼬막 비빔밥·쑥대합탕은 생동하는 듯한 다채로운 색채를 담아 눈이 먼저 즐거운 메뉴다.

카페베네와 망고식스에서는 딸기를 활용한 봄 시즌 메뉴를 선보이며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카페베네의 '딸기 크림치즈 프라페노'는 아이스 음료인 프라페노에 진한 크림치즈 젤라토와 화이트초코를 넣고 딸기퓌레를 올린 화려한 비주얼로 한껏 멋을 살렸다. 망고식스에서 선보이는 '딸기 허니브레드'도 기존의 허니브레드에 바나나·딸기·생크림을 겹겹이 쌓아 올려 눈으로 봄의 기운을 선사한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빅마켓 '캠핑 트레일러' 판다

아웃도어 열풍 발맞춰 국내 유통업계론 처음



아웃도어열풍으로 대형마트에 그동안 판매하지 않던 캠핑용 트레일러와 카약 등의 전문 스포츠용품 등이 상품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롯데마트의 회원제 할인점인 빅마켓은 오는 20일부터 4개 점포에서 유통업체 최초로 차량용 '트레일러'(사진)를 선보였다.

트레일러는 동력 없이 자동차에 연결해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게르-볼레로(GER-Bolero)'라는 모델은 무게가 190kg(공차 기준)으로 경차 견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550kg(1255ℓ)의 캠핑 장비 및 레저 장비를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

이 제품은 커버가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열리고, 방수 몰딩을 적용해 완벽한 방수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구매시 서울·경기권역의 경우 무료 배송 및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무상으로 대행해준다.

/정영일기자



홈플러스 26일까지 청소용품 할인 홈플러스는 최근 미세먼지 탓에 봄 환경 미화에 나서는 가정이 유독 늘면서 관련 용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39개 점포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소용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다. /홈플러스 제공

진라면 '류현진 먹방' 덕 전년대비 매출 18% 늘어



지난해 10월 오뚜기 진라면이 류현진(사진) 선수를 모델로 한 광고를 방송한 이후 올해 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수량 기준) 성장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진라면 1차 광고는 류현진의 '먹방' 광고였고, 2차 광고는 '사제 간의 먹방'이라는 콘셉트로 국민 감독 김인식 감독과 류현진이 동반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이런 가운데 오뚜기는 6월 29일까지 봉지면 스페셜 패키지(10입)와 5개입 멀티 제품 구매객을 대상으로 류현진 사인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정영일기자

냉이술·쑥갠떡·민들레국수 '햇 맛' 푸짐

식품업계 '빈티지 마케팅'



식품업계에서는 봄철 식재료를 활용한 '빈티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빈티지 마케팅이란 와인 업계에서 포도의 작황이 좋을 때 해당 연호를 상표에 표시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봄 덕분에 여느 해보다 우수한 '2014년 봄'의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 주기업 '배상면주가'는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일품인 '냉이'를 활용해 봄 세시주 '땅끝마을 냉이술'을 출시했다. 보통 3월 중순에 냉이술을 출시하는 것에 비해 올해에는 일찍 찾아온 봄의 영향으로 일주일가량 앞당겨서 출시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해남 땅끝마을의 참냉이로 빚은 냉이술은 냉이 특유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맛볼 수 있으며 2000병만 한정 판매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냉이술에 비해 참냉이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나와 로제와인을 연상케 하는 핑크빛이 더욱 두드러졌다.

삼립식품에서 운영하는 떡 전문 프랜차이즈 '빚은'도 봄나물을 이용한 '봄내음'(사진) 시리즈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봄나물의 대명사인 냉이를 사용한 냉이전, 냉이버무리와 미네랄이 풍부한 쑥으로 만든 쑥갠떡을 선보이고 있다.

CJ푸드빌의 한식 뷔페 '계절밥상'은 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14종을 내놓았다. 기침이나 위궤양에 좋은 민들레로 만든 민들레 국수 무침, 민들레차를 기본으로 세발 나물전, 봄동 겉절이 등 봄나물을 활용한 신메뉴로 소비자 입맛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한식 브랜드 비비고에서도 '제주의 봄'을 테마로 제주산 해산물과 돼지고기를 활용한 제철 메뉴 3종을 선보이고 있다.

배상면주가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봄이 빨리 온 덕분에 냉이의 품질이 좋고, 봄을 상징하는 냉이술이 보다 일찍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었다"며 "계절마다 그 철에 맞는 영양과 낭만을 즐겼던 우리 먹거리의 세시풍속이야말로 빈티지 마케팅의 원조다"고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입장권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예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공연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6422
www.primephil.net



한벌 60ℓ '물 빠진 청바지' 친환경 혁명

리바이스 2년전 '워터리스 공정' 도입
연간 1억6700만ℓ '23만명 식수' 절약

오는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각지에서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대표적인 글로벌 의류 브랜드 리바이스의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데님으로 유명한 리바이스는 청바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개선할 '워터리스 공정'을 2010년 개발했고 2012년 상반기 친환경 청바지인 '워터리스 진'을 국내에 출시했다.

리바이스 측에 따르면 한 벌의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60ℓ의 물이 사용된다. 하지만 새로운 워터리스 공정을 통해 최대 1.4ℓ까지 줄일 수 있어 평균 28%, 최대 96%까지 물 사용을 절감하게 됐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특히 리바이스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1억6700만ℓ의 물을 절약했다고 한다. 이는 23만 명가량이 한 해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다.

리바이스는 워터리스 공법을 처음 도입한 해에 140만 개의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만들어냈다. 하지만 현재는 이를 확대해 5300만 개의 워터리스 진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리바이스 '워터리스 진'의 제작 과정. /리바이스 제공

또 워터리스 진이 출시된 지난 2012년 3월에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할리우드 배우 맷 데이먼이 공동설립자로 있는 비영리기관 워터(www.Water.org)와 함께 고 워터리스(Go WaterLess)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리바이스는 이 캠페인을 통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삶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물 절약 습관을 카툰 형식의 영상으로 만들어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도 앞장섰다.

결국 리바이스는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의 경영 월간지인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가 선정한 '2013년 50대 글로벌 혁신 기업(The World's 50 Most Companies 2013)' 30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워터리스 진 이외에도 재활용 맥주병과 패트병에서 뽑아낸 원사로 청바지를 만드는 웨이스트리스 청바지, 버려지는 원단의 양을 최소화하려는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출시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패션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리바이스 측은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맥주대통령' 유세 33만 봤다

하이트진로 캠페인 후끈



하이트진로가 진행하는 '맥주 대통령 2014' 캠페인의 반응이 뜨겁다.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시작 일주일 만에 33만 명의 사이트 방문자와 15만 표가 넘는 투표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18일 기준 득표율은 맥스와 드라이d가 각각 50.4%, 49.6%, 19일에는 49.2%, 50.8%를 득표해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맥주 대통령 2014' 캠페인의 맥주 대통령 후보로는 맥스(기호 1번)와 드라이d(기호 2번)가 출마했으며 각 제품의모델인 배우 하정우와 가수지드래곤이 대변인으로 나서 선거 유세를 지원했다.

케이블 채널과 유튜브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 맥주 대통령 선거 홍보 영상은 현재 캠페인 티저 영상 공개와 '출마 선언' 편을 거쳐 '공약 발표' 편이 방송되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



티몬 '프로야구 티켓 예매' 시작 티몬이 이달 29일 개막하는 '2014 한국 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정규리그 티켓 예매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했다. 예매 가능한 프로야구 구단은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이상 잠실구장)와 SK 와이번스(문학구장), 한화 이글스(대전·청주구장), 기아 타이거즈(광주·군산구장), 삼성 라이온즈(대구·포항구장) 등 총 6개 구단이다. /티몬 제공

"루푸스 환자, 임신 두려워 마세요"

이대병원 이지수 교수팀



이대목동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지수(사진) 교수팀은 국내 6개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루푸스 진단을 받은 환자 112명과 정상 대조군 환자 135명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루푸스 질환이 임신 계획과 자녀 수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이 루푸스 환자군에서 86%로 정상군의 72%보다 높아 임신율은 루푸스 환자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루푸스 환자의 평균 생존 자녀 수는 1.15명으로 정상군의 1.56명보다 적었다.

첫아이가 태어나기 전 루푸스 진단을 받은 여성이 첫 아이출산 후 루푸스 진단을 받은 여성보다 평균 자녀 수가 적었다.

또 루푸스를 진단 받으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해 루푸스 질병 자체가 가족 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질병으로 인한 임신 관련 합병증도 루푸스 환자의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질병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도 부부 관계에서부터 임신 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루푸스 환자들도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질병의 활성도를 조절하면 성공적인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학철기자

'강강술래' 클릭하면 문화 즐길 일 많네

이달말까지 신청자 중 추첨
길벗 서적과 '미소' 티켓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경품이벤트' 게시판에 신청글을 올리면 책과 공연 선물을 증정하는 '디지털디톡스' 이벤트를 벌인다.

도서출판 길벗과 '하루 30분 스마트폰 끄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강강술래는 불패의 리더 이순신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만날 수 있는 '진심진력'과 운동기구 없이 군살을 쏙 빼주는 요일별 4주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 '간고등어코치 홈헬스 무작정 따라하기'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 춘향전을 중심으로 전통 춤·국악·풍물을 한데 버무린 전통 뮤지컬 '미소' 티켓(1인 2매)도 준다.



한편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 매장에서 가정간편식과 영양간식을 30% 할인 판매한다.

100%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살 수 있다. 국내산 돼지고기 70%에 아미노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한 흑임자를 접목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는 2만5200원,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칠칠한 우떡갈비'(360g×3박스)는 4만20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는 2만52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정혜인기자

metro entertainment E

가수·배우 경계가 없는 난 광대일 뿐"



정규 12집 '흔한 노래… 흔한 멜로디' 발표한 임창정

노래와 연기, 예능감까지 갖추고 있는 1세대 만능 엔터테이너가 돌아왔다. 바로 임창정이다.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그는 5년 만에 정규 12집 앨범 '흔한 노래… 흔한 멜로디…'로 대중의 곁에 섰다. 이번 앨범을 통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스타일 달라도 대중성 있는 곡

5년 만의 정규 12집 앨범을 발매한 가수 임창정의 바람은 소통과 행복이었다. "단순히 앨범을 발매하고 가수 활동을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건 아니에요. 제 음악을 사랑해주는 팬분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팬은 물론 대중과 콘서트를 통해 행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틀에 박힌 공연이 아닌 색다른 콘서트죠."

이 같은 바람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번 앨범에 담긴 노래는 휘성과 백민혁·이동원·멧돼지 등 다양한 작곡가들이 참여했으며, 편안한 멜로디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로 가득 채워졌다. 그는 "300여 곡이 넘는 데모들 중 선별한 특별한 곡으로 구성했다"며 "다양한 작곡가들에게 멜로디를 받았기 때문에 스타일은 다르지만 대중성을 갖고 있다.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래다"고 설명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흔한 노래'를 비롯해 감성 발라드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12번째 트랙 '임박사와 함께 춤을'은 테크노와 트로트가 가미된 곡으로 앨범 전체 느낌과 상반된다. "타이틀곡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 곡은 테크노 뽕짝의 전설 신바람 이박사의 도움을 받았죠.(웃음) 그런데 완성된 곡을 들어보니 국적을 알수없는 노래가 됐더라고요. 대중에게 웃음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곡이기도 해요."

◆ 콘서트 새로운 돌풍 예고

임창정은 '이미 나에게로'로 시작해 '소주 한잔' '늑대와 함께 춤을' '그때 또 다시' '러브어페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자신의 이름을 건 콘서트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단독 콘서트는 2회 정도 진행했어요. 과거에는 짜여진 틀에 맞춰 공연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콘서트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죠. 그런데 DJ DOC 공연을 보면서 임창정만의 콘서트를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죠."

임창정은 앨범 발표와 함께 오는 5월부터 7개 도시에서 10회 공연을 펼친다. "음악과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10대 젊은 관객이 아닌 제 노래를 즐겨 들었던 3040세대가 즐길 수 있는 파격적인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요. 19금 콘서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리낌 없이 솔직한 공연을 보여줄 거예요."



이번 앨범은 감성 발라드 어디서나 접할만한 노래 3040세대 마음껏 즐기는 나만의 파격공연도 할 것

◆"가수? 배우? 나는 대중 예술가"

데뷔 20주년을 맞은 임창정은 1995년도에 1집 앨범 '이미 나에게로'를 통해 발라드 가수로 이름을 알렸다. 이어 영화 '비트'에서 환규 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고, KBS2 '슈퍼선데이'의 시트콤 '금촌댁 사람들'에서는 코믹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웃음을 안겼다. 이외에도 영화 제작과 시나리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영화배우로, 30대에게는 가수 겸 배우로 인식되고 있다. 그는 "주변에서 종종 직업이 뭐냐는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대중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며 "대중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갈 준비가 돼 있다. 동네 노래자랑 행사에 찾아갈 수 있고, 독립영화에 출연할 수 있다. 대중 예술을 하는 광대일 뿐이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김민아 이어 이지애 프리 선언 줄줄이 퇴사하는 여자 아나

여자 아나운서들의 퇴사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오전 KBS 이지애(사진 왼쪽) 아나운서의 프리 선언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MBC스포츠 플러스의 김민아(오른쪽) 아나운서도 지난 18일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MBC스포츠 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19일 "김민아 아나운서가 휴가 후 돌아와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사직서 수리 중이다"고 말했다.

김민아 아나운서는 최근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위해 장기 휴가를 내고 휴식기를 가졌다. 이후 김민아 아나운서는 새 프로그램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MBC스포츠 플러스 공채아나운서로 입사한 김민아 아나운서는 '베이스볼 투나잇 야' 등을 통해 인기를 얻어 '원조 야구 여신'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지민기자

'무한도전' 이번엔 카레이싱

MBC '무한도전'이 이번엔 카레이싱에 도전한다.

오는 22일 방송에서는 올해 첫 장기 프로젝트인 '스피드 레이서' 특집이 방송된다. 지난 15일 방송에서 멤버들은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KSF)' 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22일 방송에서 본격적인 대회 출전 준비를 시작한다.

멤버들은 이미 2010년 'F-1' 특집으로 카레이싱을 경험했지만 이번 특집에서 엄청난 스피드에 유난히 겁먹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현직 레이서를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난 주행 실력을 보인 멤버도 있어 '스피드 레이서' 특집의 에이스로 떠올랐다.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초반에 잔뜩 긴장한 채 서킷 주행에 나서지만 연습이 진행될수록 주행 시간 단축에 열을 올리며 묘한 경쟁심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

안방·스크린 '김희애 전성시대'

'꽃보다 누나' 이어 '밀회' 히트 예감… '우아한 거짓말'은 흥행 1위 질주



요즘 연예계는 바야흐로 김희애(사진)의 전성시대다.

tvN '꽃보다 누나'로 시작해 영화 '우아한 거짓말', JTBC '밀회'까지 최근 출연작마다 연속 히트를 치고 있다. 분야도 예능·영화·드라마로 다양해 그야말로 연예계 전체를 종횡무진하는 중이다.

13일 개봉한 '우아한 거짓말'은 '300: 제국의 부활' '논스톱' 등 외화 블록버스터들의 공세 속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19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전날 관객 수 5만5526명을 동원했으며, 누적 관객 수는 62만6055명을 모았다. 21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인 '우아한 거짓말'은 세상을 떠난 딸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풀어나가는 남은 모녀의 이야기로, 잔잔한 감동으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17일 첫 방송한 '밀회' 역시 방영 2회 만에 시청률 3%를 돌파해 히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청률이 1회 3.2%(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 가구 광고 제외 기준)를 기록해 JTBC 역대 월화극 첫 회 시청률 중 최고 수치를 경신했고, 2회는 3.8%로 치솟았다.

실제 약 스무 살의 나이 차가 나는 김희애와 유아인의 파격 멜로로 방영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은 이 드라마는 두 배우의 섬세한 연기와 뛰어난 영상미, 극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이 호평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중년의 여배우가 다양한 분야에서 흥행을 이끄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김희애의 영리한 작품 선택과 철저한 자기 관리, 물오른 연기력, 대중과의 친밀도가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기폭제는 '꽃보다 누나'였다. 주로 화장품 CF에서 중년의 아름다움을 과시했던 김희애는 예능에서 털털한 누나 이미지로 어필하며 대중과 친밀도를 높였다.

이후 오랜만의 스크린 복귀작인 '우아한 거짓말'에서 평범한 동네 주부로 절제된 모성애를 연기하며 공감과 감동을 자아냈다. 반면 '밀회'에서는 중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력적인 연하남과 사랑하는 여인으로 변신해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현재 극장가가 비수기라 '우아한 거짓말'의 인기를 잠재울 한국 영화가 많지 않은 데다 '밀회'의 치정 멜로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 김희애의 인기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지드래곤·씨엘 래핑 앨범 10개국 1위

'리세스' 중독성 강한 비트에 다양한 사운드 구성… 美 음악팬 관심 한몸에

빅뱅과 2NE1의 두 리더 지드래곤과 씨엘이 미국 음악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이들이 YG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 테디·초이스37과 함께 작업에 참여한 스크릴렉스의 새 앨범 '리세스'가 미국 아이튠즈 앨범차트 2위에 올랐다. 또 이 앨범은 세계 10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올랐다. 이들이 참여한 곡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더티 바이브'로 중독성 강한 비트와 다양한 사운드로 구성됐다. 지드래곤과 씨엘의 강렬한 래핑이 인상적인 곡이다.

'더티 바이브'에는 지드래곤의 '쿠데타', GD&TOP의 '뻑이가요' 등을 작업한 DJ 디플로도 참여했다.


지드래곤


씨엘

스크릴렉스는 지난해 국내 한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해 국내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위 음악 장르였던 덥스텝 열풍을 몰고 오면서 2년 연속 그래미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DJ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가수들은 그동안 세계 정상급 뮤지션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화제를 모아왔다. 지드래곤의 정규 2집 '쿠데타'에 디플로·바우어·미시 엘리엇 등이 참여했고, 2NE1은 윌아이엠의 앨범 '#윌파워'에 브리트니 스피어스·저스틴 비버·마일리 사이러스 등과 함께 피처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유순호기자 suno@

이소라 신곡 악보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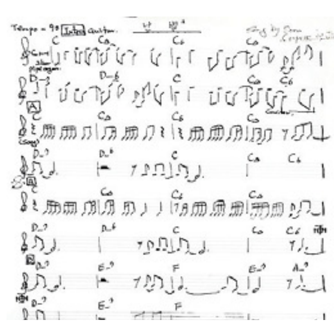
가수 이소라가 정규앨범 '8' 발표를 3주 앞두고 수록곡의 악보를 공개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이소라는 18일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정규 8집 '8' 수록곡 '난 별' 악보(사진) 2장과 가사 전문을 공개했다. 'A 파트'라 불리는 도입부는 한 음이 16분 음표와 8분 음표로 50번씩 반복되는 멜로디다. 실제 곡에서는 이소라의 목소리로 어떻게 구현됐을지 궁금함을 더하고 있다.

최근 가요계에서 새 앨범의 사전 홍보 방식은 티저 사진 공개 및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타이틀곡 '1분 미리 듣기' 공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소라는 직접 손으로 쓴 글씨로 새 앨범 발매를 예고하는 등 아날로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정지찬·김민규·이한철·정순용 등 국내 최고의 뮤지션들이 참여한 이번 앨범은 제작 기간만 총 6년이 소요됐다"며 "한국·미국·영국 등 3개국을 오가며 작업한 만큼 최상의 사운드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이소라의 정규앨범 '8'은 다음달 8일 공개된다.

/양성운기자 ysw@



조성모 '변화의 바람'으로 4년만에 컴백

가수 조성모(사진)가 4년 만에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가요계에 복귀한다.

19일 소속사 폼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조성모는 오는 24일 미니앨범 '변화의 바람'을 발표한다. 지난 2010년 12월 발표한 미니앨범 '땡큐' 이후 4년 만의 새 앨범이다.

조성모는 1998년 1집 '투 헤븐'으로 데뷔해 동명의 타이틀곡으로 인기를 끌며 발라드 장르 스타로 올라섰다. 이후 '슬픈 영혼식' '아시나요' '다짐' '후회' 등 히트곡을 낳으며 현재까지 10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3월 22일 첫방송
드라마는 끝났다
이제 당신이
연애할 차례!
MENU
ROMANCE
로맨스가
더 필요해
매주 토 밤 11시 20분 tvN 방송







신 한류 5대 천왕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민호·장근석·이종석·김우빈·김수현(왼쪽부터)

'한류 신 5대 천왕' 맞으라

'한국 드라마 남신' 투표 중국서 개최… 이민호·김수현 등 톱5 선정

'신한류 5대 천왕' 시대가 왔다.

배용준·이병헌·장동건·원빈 등 2000년대 한류를 이끌었던 '한류 4대 천왕'의 시대가 저물고 이민호·김수현·장근석·이종석·김우빈 등 20대 배우들이 한류의 새로운 대세로 떠올랐다.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음악과 연예 전문 사이트인 쿠고우닷컴에서 진행한 '2014 한국 드라마 남신 투표'에서 이민호·김수현·장근석·이종석·김우빈이 5대 남신으로 선정된 일은 한류스타의 세대 교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이전의 한류스타들과는 여러모로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매우 빠르고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드라마가 인기리에 TV로 방영될 때 해외 드라마 팬들도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시청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연배우들의 해외 인기도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

또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중국인들의 문화 소비 욕구가 증가하자 한류스타들의 인기 거점도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갔다.

최근 종영한 SBS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로 한류스타로 급부상한 김수현이 대표적인 예다. 해당 드라마가 중국에서 정식 TV로 방영되기 전인데도 현지에 '별그대'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김수현은 중국 최대 검색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 꼽은 '오늘의 남자 배우 부문' 순위 1위에 올랐다.

이종석 역시 국내에 신드롬을 일으킨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출연과 동시에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차기작으로 SBS 새 월화극 '닥터 이방인'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중국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바이두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에 이종석의 중국 방문 소식은 물론 최근 근황과 '닥터 이방인'에 대한 정보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면서 "중국 팬들의 반응은 한국보다 한 발 빠르다. 가히 실시간 중계를 방불케 해 정보가 삽시간에 해외로 퍼진다"고 중화권 내 뜨거운 반응을 설명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개그맨+가수>

'개가수' 열풍 부나

김경진·윤성한 '원플러스원' 결성… 손헌수도 싱글 발표

개그맨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일명 '개가수'들의 음반 발매가 잇따르고 있다.

김경진(**오른쪽 사진**)과 윤성한(**왼쪽**)은 힙합그룹 '원플러스원'을 결성해 20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다윗과 골리앗'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원플러스원은 정만호의 '원달러'와 김경진의 '원헌드레드'가 합쳐진 이름이다.

두 사람은 "전에도 앨범을 냈지만 진지하게 음악을 하고파 팀을 결성했다"며 "전문가에게 보컬 레슨을 받고 유명 프로듀서에게 오디션도 봤다. 솔직히 리쌍도 잡아보고 싶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이들은 원플러스원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사회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경진의 선배 손헌수도 가수로 변신했다. 손헌수는 지난 14일 싱글 '다녀오겠습니다'를 발표, 이튿날 MBC '쇼! 음악중심'에 출연해 아이돌 선배들에게 인사를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손헌수는 "처음 서보는 음악 무대가 낯설어 연습을 많이 했다"며 "첫 방송을 무사히 끝낸 것만으로도 감사드린다"고 가수 데뷔 소감을 전했다.

2000년 1집 '상상'을 발매했던 송은이도 약 15년 만에 가수에 재도전했다. 송은이는 지난 1월 FT아일랜드의 멤버 송승현과 함께 '투송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나이-키'를 발표했다. 송은이는 지난해 유재석의 '더위 먹은 갈매기'에 피처링으로 참가하는 등 음악 활동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다.

/김지민기자 langkim@

추리 게임에 빠진 시청자

범인 찾는 두 드라마 '신의 선물' '쓰리데이즈' 인기몰이

모든 게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SBS가 일주일 내내 추리 장르 드라마를 선보이자 시청자의 관심이 범인 찾기에 쏠려있다.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이하 '신의 선물')의 18일 방송에 선딸 한샛별(김유빈)의 살해범으로 문구점 주인 장문수(오태경·**사진 오른쪽**)가 거론됐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차봉섭(강성진)의 죽음으로 제2막이 오른 '신의 선물'에선 이날 장문수의 집까지 잠입한 김수현(이보영)이 그의 방에서 살인 도구로 추정되는 물건과 벽을 가득 채운 딸의 사진을 발견하며 마무리됐다.




드라마 게시판에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추측이 무성한 상태다. 장문수 외에 샛별의 아빠 한지훈(김태우)부터 샛별이가 좋아하는 가수 스테이크의 테오(노민우)까지 등장인물 모두 범인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주인공들의 운명에 시청자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도 5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대통령 이동휘(손현주)를 좌지우지하기를 원하는 기업가 김도진 역을 맡은 최원영은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 "어차피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다"라고 말해 대통령 암살과 관련 있는 인물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력한 대통령 암살범으로 꼽히고 있는 경호실장 함봉수(장현성·**왼쪽**) 이외에 다른 인물이 가담했다는 사실에 시청자들의 관심은 '악의 근원'을 추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범인 찾기로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두 드라마는 시청률 상승세를 타며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

곽시양 '기분 좋은 날' 합류

배우 곽시양(사진)이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 출연을 확정 짓고 안방극장에 데뷔한다.

19일 곽시양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곽시양이 '열애' 후속으로 다음달 방송될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에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기분 좋은 날'은 꿋꿋하게 세 딸을 키운 홀어머니가 세 딸 모두 번듯한 사위에게 시집보내기 위해 겪는 고군분투기를 그린 드라마로 곽시양은 셋째 딸 손나은의 상대역인 정희주를 연기한다.

곽시양은 주연작이자 데뷔작이었던 영화 '야간비행'으로 지난달 제64회 베를린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현지에서 큰 반응을 얻었다.

한편 '기분 좋은 날'은 '열애' 후속으로 다음달 첫 방송 된다.

/양성운기자 ysw@

박성웅·김성균 카리스마 대결

영화 '살인의뢰' 캐스팅

연기파 배우 김상경·김성균(오른쪽 사진)·박성웅(왼쪽)이 영화 '살인의뢰'(가제)에서 연기 대결을 펼친다.

이 영화는 연쇄살인범에게 여동생을 잃은 형사와 아내를 잃은 평범한 남자의 극한의 분노가 빚어내는 복수를 그린 작품이다.

날카로운 눈빛과 따뜻한 감성을 함께 지닌 김상경은 살인마에게 여동생을 잃고 괴로워하는 형사 태수 역을 맡았다. '살인의 추억'과 '몽타주'에서 형사 역을 맡아 7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그는 형사 특유의 카리스마와 여동생을 잃은 애절함을 함께 선보인다.

탁월한 연기력으로 소름 끼치는 악역부터 사랑스러운 남자친구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김성균은 연쇄살인범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한없이 무너지는 남자 승현을 연기한다. 평범한 사내의 슬픔이 복수로 변하는 모습을 선보인다.

'신세계'에서 잠재력을 터뜨리며 유행어까지 탄생시킨 박성웅은 지독한 연쇄살인마 강천을 맡았다. 희대의 살인마로서 강렬한 악역을 선보이게 된다.

한편 윤승아가 홍일점으로 합류해 부드러움을 더한다. 연쇄살인마에게 희생당한 수경 역을 맡는다.

영화는 상반기 크랭크인해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탁진현기자 tak0427@



재치만점 전문가 입담 전쟁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솔드아웃' 합류… 요리 실력자 박준우 '올리브쇼' MC 발탁

최근 비방송인들의 TV 출연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패션·요리·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계 전문가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입담을 과시하며 TV를 점령하고 있다. 이들은 재치 있는 언변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면모도 발휘하며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이효리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한혜연은 다음달 11일 방송되는 온스타일 '솔드아웃'에서 업계 1인자다운 스타일링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앞서 그는 '이효리의 골든12', '이효리의 X 언니' 등에서 평소 생활 모습을 공개하며 범상치 않은 유머 감각을 발휘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재미와 카리스마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혜연이 앞으로 '솔드아웃'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의 박준우 기자는 준우승을 거머쥔 후 방송인으로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박준우는 요리 실력 뿐만 아니라 감각 있는 스타일, 재치 있는 언변 등으로 인기를 모았고 지난해 제국의 아이들의 광희와 함께 올리브TV '마트를 헤매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의 MC로 활약하기도 했다. 탁월한 진행 실력으로 성공적인 MC 데뷔를 치른 박준우는 지난 10일부터 홍은희·광희와 함께 '올리브쇼 2014'의 진행자로 발탁됐다. 박준우는 재치 있는 말솜씨와 해박한 요리 지식으로 방송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TBC '썰전' '마녀사냥'을 통해 '대세남'으로 떠오른 허지웅은 남성 잡지 GQ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영화 평론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허지웅은 솔직한 태도와 거침없는 언변으로 '발라드 브레인' 성시경과 '성인 개그 일인자' 신동엽에게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온스타일 '솔드아웃'의 한혜연, 올리브TV '올리브쇼 2014'의 박준우, JTBC '마녀사냥'의 허지웅(왼쪽)과 성시경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CJ E&M·JTBC 제공

유인나 中 영화 '웨딩바이블' 주연

배우 유인나(사진)가 허인무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중국 영화 '웨딩바이블'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19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유인나는 '웨딩바이블'에서 모든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인 여주인공 저우메이리 역을 맡게 된다. '웨딩바이블'은 저우메이리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왕지아지아와 만들어가는 우정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YG는 "저우메이리는 영국에서 공부한 뒤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상하이로 돌아온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모태 여신'"이라고 소개했다.

상대역인 왕지아지아 역엔 중국 배우 가오이샹이 캐스팅됐다.

'웨딩바이블'의 메가폰을 잡은 허인무 감독은 영화 '신부수업'(2004), '허브'(2007),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2011) 등을 연출했다. 유인나는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에서 허인무 감독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양성운기자 ysw@



오만석 '일단 띄워' 출연… 김상경 '공소시효'서 수사관 변신

배우 '예능 외도' 계속된다

배우들의 예능 출연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송지효·이광수 등 예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배우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는 누구일까?

배우 오만석이 SBS 파일럿 프로그램 '일단 띄워 SNS 원정대'(이하 '일단 띄워')에 출연한다. '일단 띄워'는 오만석 외에 배우 서현진·김민준 등 예능 프로그램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배우들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올해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SBS가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출연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개된 브라질 맛집이나 명소 등을 찾아다니며 정보와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는 여행 콘셉트의 방송이다.

배우 김상경(사진)은 KBS2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공소시효'에서 카리스마 수사관으로 변신한다.



'공소시효'는 김상경 이외에 조언자로 나선 임윤선 변호사와 32년 경력 형사 출신 김복준 교수, 영화 '살인의 추억' 속 송강호 역할의 실제 주인공 하승균 전 형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한다. 이들은 강력 범죄부터 지능 범죄까지 모든 사건을 매의 눈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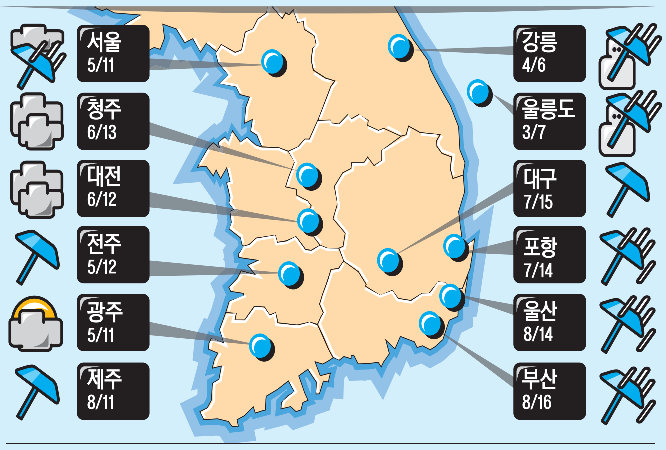
특히 앞서 다수의 작품을 통해 따뜻하면서도 신사적인 모습을 보인 김상경이 진행자로 확정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날씨

3/20木 일출시각 06:36 일몰시각 18:4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구강암, 설암, 후두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합니다. 금연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고 암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기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9			7		8	
	3			6				7
	4		9				2	
		3		2	1	8		
4			7		3			5
		2	5	8		3		
	9				6		3	
2				4			6	
	5		2			7		8

	9	3		5		6	2	
			4			8	5	
			9	1				3
	5				9	7		2
1		2	3				8	
2				3	6			
	7	9			1			
	6	8		9		3	1	

스도쿠 정답

6	2	9	1	5	7	4	8	3
8	3	1	4	6	2	9	5	7
7	4	5	9	3	8	6	2	1
5	7	3	6	2	1	8	9	4
4	6	8	7	9	3	2	1	5
9	1	2	5	8	4	3	7	6
1	9	4	8	7	6	5	3	2
2	8	7	3	4	5	1	6	9
3	5	6	2	1	9	7	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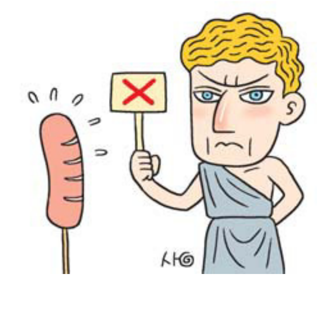
4	9	3	8	5	7	6	2	1
7	2	1	4	6	3	8	5	9
6	8	5	9	1	2	4	7	3
8	5	6	1	4	9	7	3	2
9	3	7	6	2	8	1	4	5
1	4	2	3	7	5	9	8	6
2	1	4	7	3	6	5	9	8
3	7	9	5	8	1	2	6	4
5	6	8	2	9	4	3	1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로마황제는 왜 소시지를 못 먹게 했을까?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소시지는 어른, 아이 모두 좋아한다. 인류가 먹은 역사도 오래여서 고대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에도 나온다. 이런 소시지를 로마 시대에는 두 번이나 못 먹게 했다. 왜 소시지 금식령이 내려진 것일까?

소시지 금식령의 주인공은 9세기 비잔틴제국의 황제 레오 6세였다. 당시 동로마에 식중독이 퍼졌는데 순대처럼 고기와 피를 채운 소시지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세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소시지를 잘못 먹어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는 많았다. 때문에 소시지의 나라인 독일에서는 식중독을 아예 소시지 중독(Wurstgift)이라고까지 표현한다.

4세기 초반 서로마에서도 비공식적이지만 소시지 먹는 것이 금지됐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엉뚱하게 소시지에 불똥이 튀었다. 사치스러운 음식인 데다 풍기문란을 유발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시지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기독교 공인 이전 로마에서는 봄맞이 축제로 루퍼칼리아 축제가 인기가 높았다. 로마 건국 신화의 주인공 로물루스와 레무스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로 봄이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고 다산을 기도하는 날이었다고 한다. 로마 시대에도 남녀가 유별했는데 축제 기간만큼은 선남선녀의 자유로운 만남이 허락됐다. 소시지는 바로 루퍼칼리아 축제에서 먹는 음식이었다. 그런데 1세기 네로 황제 때부터 루퍼칼리아 축제가 문란해지기 시작했다. 갈수록 눈살을 찌푸릴 정도가 됐다. 결국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순결을 강조하고 우상숭배 기피 풍조가 퍼지면서 축제 자체가 금지됐고 덩달아 축제 음식인 소시지까지도 기피하게 됐다. 빗나간 봄맞이 축제로 소시지가 피해를 봤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업도 없고 되는 일 없는데… 운전 조심, 기술 계통 나가야

배두산산 남자 78년 7월 17일 음력 점심때

Q 사주를 보면 크게 나쁠 것이 없다고 말하면 70점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낙제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주가 나쁜 데다 노력도 안 하는 것인지 대학도 못 갔고 직업도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만나는 일도 없이 올해도 어머니에게 걱정만 끼치고 살고 있습니다.

A 귀하는 생일주(生日柱)에서 갑목(甲木)이 녹지에 있으며 가을 태생이니 열매가 잘 맺은 나무와 같아 복록이 갖춰진 사주로서 대체적으로 길합니다. 갑목 사주는 병화(丙火)와 진토(辰土)가 살아가는 데 도구가 되며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직업을 택한다면 기술 계통으로 나가야 합니다. 갑목이 인신 충살(沖殺)을 받아 인중에 무토인 이성운이 흉해 여자를 만날 수가 없으며 나이는 있으나 2016년까지는 여전히 장애가 있습니다. 2014년 천충지충(天衝地沖)하고 대운에서 충살을 받고 있으니 일 년 내내 운전하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사주를 알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널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 역학 공부를 해보십시오.

운이 없는지 계약직 못벗어나 외국어공부 정진하면 길 있어

향이루 여자 81년 11월 25일 음력 12시30분

Q 연봉을 떠나서 한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직할 곳을 다니고 있지만 계속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졸업 후부터 직장운이 없는 탓인지 계약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A 말 그대로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궁즉통(窮則通)이라는 말은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고 헤쳐나가는 데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해도, 열리는 기회가 없다 해도 온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 상담 신청한 것은 아니겠지만 희망적인 어떠한 얘기도 말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어만이라도 원어민과 대화하여 막히지 않을 정도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집안의 돈 문제로 공부가 안 되면 마음을 담아 취침 전 10분씩이라도 기운을 모아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 또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머리가 맑아지면서 지혜가 모이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20일 (음 2월 20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자손에게 경사가 생긴다. **60년생** 기회 왔을 때 인생 새롭게 디자인하라. **72년생** 편견을 깨면 새 길이 보인다. **84년생** 지나간 실수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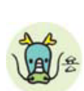
49년생 입맛이 당길 때 숟가락 놓아라. **61년생** 자녀가 좋은 소식 전한다. **73년생** 명예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 **85년생** 소망한 일은 다소 지연이 된다.



50년생 자금 회전이 원활해진다. **62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격~. **74년생** 대인관계 소홀하면 나중에 땅을 친다. **86년생** 옛말이 틀린 것 없으니 명심할 것.



51년생 분수 지키며 경거망동 삼가라. **63년생** 무리하면 후회만 남는다. **75년생** 모임에 가면 황당한 일을 경험할 수도. **87년생** 프러포즈할 분위기는 무르익는다.



52년생 가정이 화목하니 만사 즐겁다. **64년생** 원하던 기회가 오면 인생을 바꿔보라. **7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8년생** 세상은 비정하니 생존에 힘써라.



53년생 자녀가 고민거리 안기는구나. **65년생** 토끼한테 뿔을 찾는 격이다. **77년생** 생각도 못 한 공돈이 생겨 야호~. **89년생** 걱정한 일은 좋은 방향으로 풀린다.



42년생 환자는 병세가 호전된다. **54년생** 운기가 별로이니 자중할 것. **66년생** 작은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내린다. **78년생** 아리송한 일은 결정을 미루어라.



43년생 재물운이 길해 수입이 쑥~. **55년생** 주변 비판에 흔들리면 손해 본다. **67년생** 급해도 우물 가서 숭늉 찾지 마라. **79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44년생 원기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 **56년생** 용돈이 생겨 즐거운 비명~. **67년생** 지름길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80년생** 상사의 농담에 뼈가 있음을 알아라.



45년생 갈 곳이 많아 바쁜 하루~. **57년생** 말썽 많은 일은 속전속결이 좋다. **69년생** 증권 대박은 환상이니 짐 싸라. **81년생** 부모에게 보석 같은 유산 물려받는다.



4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58년생**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면 기도하라. **70년생**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승산이 있다. **82년생** 자신이 있어도 과욕은 금물~.



47년생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라. **59년생** 변화보단 현상 유지가 좋다. **71년생** 오전은 길하나 오후가 걱정이로구나. **83년생** 앞으론 울지만 뒤론 웃는 격이다.

류현진 세 고개 넘어라

23일 호주 개막전 등판… 낯선 환경·낮 경기·타자 골드 슈미트 극복 과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류현진(27·LA 다저스·사진)이 호주에서 올 정규시즌 첫 승을 노린다.

류현진은 23일 오전 11시(한국시간) 호주 시드니의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정규시즌 개막 두 번째 경기에 선발로 출전한다. 메이저리그의 세계화를 위해 시도되는 호주 개막전에서 그는 클레이턴 커쇼와 함께 팀 간판 역할을 맡았다.



경기 출전을 위해 다저스 선수들과 함께 16시간을 날아 18일 호주에 도착한 류현진은 이날 비행의 피로를 안고 현지적응훈련을 했다.

류현진이 첫 승을 하기 위해서는 낯선 환경과 상대 팀 등 몇 가지 극복할 과제가 있다.

18일 현지적응훈련을 한 다저스 선수들은 "불규칙 바운드가 예상된다"며 경기 장소인 크리켓 그라운드의 상태를 우려했다. 지난해 땅볼 유도를 즐겼던 류현진에게는 다소 껄끄러울 수 있는 환경이다. 낮 경기 역시 류현진에게 달갑지 않다. 류현진은 지난해 낮 경기에서 3승3패 평균자책점 4.02로 다소 부진했다.

애리조나는 류현진이 지난해 5차례 맞붙어 1승2패, 평균자책점 4.65를 기록해 반갑지 않은 팀이다. 특히 애리조나의 골드 슈미트는 류현진에게 가장 껄끄러운 타자다. 그는 지난해 류현진을 상대로 14타수 7안타(타율 0.500) 1홈런 5타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류현진에게 13타수 5안타(2루타 1개, 3루타 1개) 2볼넷을 얻은 A.J. 폴록도 주의할 대상이다.

다만 이번에 선발 맞대결할 투수인 트레버 케이힐과의 비교에서는 류현진이 앞선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선발 대결에서는 다저스가 우위에 있다"고 류현진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19일 경기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승리한 SK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SK, 오리온스 제치고 4강 PO 진출

모비스와 결승행 대결

프로농구 SK가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서울 SK와 고양 오리온스는 19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5전3승제) 4차전을 펼쳤다.

이날 SK는 오리온스와의 원정경기에서 63-60으로 승리해 3승1패를 기록하며 4강에 진출했다.

SK는 전반 41-26으로 앞서 나갔지만 3쿼터 초반 오리온스에 연달아 5점을 내주며 따라잡혔다. 하지만 경기 막바지 11점을 연달아 넣으며 격차를 벌렸다.

최부경이 자유투 2개를 성공한 뒤 코트니 심스가 2점슛과 3점슛을 성공했다. 여기에 김선형과 최부경이 2점씩 보태며 3쿼터 종료 직전 21점 앞서 나갔다.

4쿼터에 들어서자 오리온스는 장재석과 앤서니 리처드슨, 이현민이 연달아 득점에 성공하며 추격에 나섰고 최진수, 이현민이 3점슛을 넣으며 득점했다.

최진수는 경기 종료 2분24초 전 3점슛을 넣고 59-59로 따라잡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SK가 앞서며 오리온스의 추격 기세를 막았다. SK 종료 1분5초를 남긴 상태에서 박상오의 3점포가 빗나갔지만 박승리가 이를 공격 리바운드로 연결해 승리를 거뒀다.

승리를 거둔 SK는 23일부터 정규리그 2위 울산 모비스와 4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다.

SK는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모비스에게 4패를 당한 전적이 있으나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는 4승2패의 성적을 기록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프로농구 전적 19일

오리온스	17	9	12	22	60
SK	21	20	12	10	63

손연재 "메달 행진 잇는다"

리듬체조 월드컵 출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사진)가 시즌 첫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에 출전한다.

22~23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슈투트가르트 가스프롬 월드컵이다. 지난 시즌 리스본 대회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회까지 다섯 차례 월드컵에서 모두 종목별 메달을 따낸 손연재는 또 한 번 전 대회 메달을 노린다.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다. 손연재는 지난 2일 끝난 시즌 첫 국제대회인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개인종합 6위와 후프·곤봉·리본 종목 동메달을 획득했다. 손연재가 아시아선수권을 제외한 국제대회에서 메달 3개를 따낸 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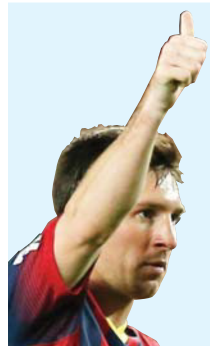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는 모스크바 그랑프리에 나오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선수들을 비롯해 마르가리타 마문(19)·야나 쿠드랍체바(17·이상 러시아), 멜리티나 스타니우타(21·벨라루스)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다.



그러나 손연재로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세계 리듬체조계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9월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잡은 손연재는 올 시즌 그랑프리와 FIG 월드컵 등 대부분 국제대회에 잇따라 출전해 아시안게임까지 실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모스크바 인근에서 훈련해 온 김윤희(23·인천시청)도 이번 대회에서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600억원 사나이

메시 축구선수 작년 수입 1위
호날두·네이마르·루니 뒤이어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FC 바르셀로나·사진)가 지난해 4100만 유로(약 610억원)를 벌어 전 세계 축구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풋볼이 19일 발표한 2013년 축구선수 수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시는 지난해 연봉(1500만 유로)과 기타 수입(2600만 유로)을 더해 4100만 유로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2위는 3950만 유로(약 588억원)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레알 마드리드)로 집계됐다.

메시는 3년 연속 1위를 지키다 지난해에 데이비드 베컴(영국)에게 밀렸지만 이번에 다시 정상을 되찾았다.

메시의 팀 동료 네이마르 다 실바(브라질)가 2900만 유로로 3위를 차지했다. 웨인 루니(잉글랜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연봉에서는 1900만 유로를 기록해 최고 액수를 자랑했으나 광고 출연료 등 기타 수입이 다른 선수들보다 적어 4위에 머물렀다.

감독 수입 순위에서는 조제 무리뉴 첼시 감독이 1700만 유로로 1위, 주제프 과르디올라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1500만 유로로 2위로 조사됐다. /탁진현기자

"윤석민, 마이너리그서 시즌 시작할 듯"

윤석민(28·볼티모어 오리올스)이 메이저리그 첫 등판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전망이다.

미국프로야구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9일 "윤석민은 정상적으로 시즌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벅 쇼월터 볼티모어 감독이 투수진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천웨인·미겔 곤살레스·보드 노리스가 3~5선발 자리를 차지하고, 브라이언 매슈스·라이언 웹·대런 오데이·토미 헌터 등이 불펜 투수로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민은 취업비자 획득 문제로 지난 16일에야 시범경기에 나서는 등 다른 선수들보다 한 달 정도 스프링캠프에 늦게 합류해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개막 시점에 준비를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MLB닷컴은 내다봤다.

볼티모어 지역 언론 MASN도 이날 "(볼티모어 산하 트리플A) 노포크 타이즈 선발 로테이션이 케빈 가우스먼·스티브 존슨·T.J. 맥퍼랜드·윤석민·마이크 라이트로 구성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순호기자 suno@

ACL 조별리그 3차전 19일

울산	1	1	귀저우
서울	1	2	히로시마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HAPPY SHAKE!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